

## 靈樞·刺節眞邪에 對한 研究

金恭彬·吳政大·李南九

東新大學校 韓醫科大學

### <Abstract>

Jaguljinsalonpyen(刺節眞邪篇) gives fully explanation about jinae(振埃), balmong(發蒙), gejo(去爪), chelue(撤衣), haehok(解惑) in ojel(五節) of chimjabyup(鍼刺法), also effect and method of osa(五邪) about jiong(持癰), youngdae(容大), hyupso(狹小), han(寒), yel(熱), and others. Those are based on theory that same rule of nature and physiological function and treatment symptoms of geljeng(厥證), sanghanhayel(上寒下熱), sangyelhahan(上熱下寒) by concrete step of joqi(調氣), haegyel(解結), chuisangji(推而上之), chuisanji(推而散之). At the conclusion, it describes origin and function of jinqi(眞氣), relationship jinqi(眞氣), jengqi(正氣), occurrence and development of disease by saqi(邪氣), in additions, pathology of pain, swelling, fever, chill, pruritus, benumb, mamokbulin(癱木不人), golbi(骨痺), genlyun(筋攣), pyungo(偏枯), golsik(骨蝕), genryu(筋溜), jangryu(腸溜), golje(骨疽), yukje(肉疽). The aboves have close connection with the strength of stimulus of yein(外因), vicissitudes of jinqi(眞氣). Though difference between symptoms and region, it is factor that jinqi(眞氣) is decrease and saqi(邪氣) is increase. On this chapter, it describes relationship between jinqi(眞氣) and saqi(邪氣). Because chimjabyup(鍼刺法) about ojel(五節) and osa(五邪) is descresed on this chapter, it names Jaguljinsalonpyen(刺節眞邪篇).

In this study, the contents is investigated by classification 4 chapters. For typographical error, changing of literary embellishment, it difficults to understand contents. In accordance, this study helps correct comprehension of contents with reference to many woodblock-printed book.

Key words : ojel(五節), osa(五邪), haegyel(解結), jinqi(眞氣), saqi(邪氣)

### 1. 緒論

「刺節眞邪」는 『靈樞』第七十五에 編述되어 있는데, 『太素』에는 卷二十五 「五節刺」, 「五邪刺」에, 『甲乙經』에는 卷五第二, 卷七第一第三, 卷十第二, 卷九第三第十一, 卷十二第五에, 『類經』에는 卷二十一 「鍼刺類」와 卷十三 「疾病類」에 敍述되어 있다.

本篇에서는 鍼刺法中 五節 즉 振埃, 發蒙, 去爪, 撤衣, 解惑에 대하여 자세한 소개를 하고

있고, 아울러 持癰, 容大, 狹小, 寒, 熱 등 五邪에 대한 鍼刺의 作用과 方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는 自然界의 規律과 人間의 生理機能이 同一하다는 理論에 근거하여 刺鍼의 道理를 闡發하여 調氣, 解結, 推而上之, 推而散之 등의 구체적 方法으로 厥症, 上寒下熱, 上熱下寒 등의 病症을 치료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眞氣의 來源과 機能을 서술하고 眞氣와 正氣 그리고 邪氣가 疾病의 發生과 發展에 어떤 關係를 가지고 있는지를 논술하고, 아울러

虛邪가 人體에 積중하여 發生하는 疼痛, 癱, 發熱, 寒, 痒, 痺, 麻木不仁, 骨痺, 筋攣, 偏枯, 骨蝕, 筋溜, 腸溜, 骨疽, 肉疽 등의 病變過程을 열거하고 있다. 이는 모두 外因刺戟의 強弱, 그리고 人體眞氣의 盛衰와 깊은 關係를 가지고 있는데, 그 症狀와 侵犯部位가 다 다르지만 모두 眞氣가 衰弱해지고 邪氣가 盛해진 結果로 보고 있다. 本篇에서는 重點의 眞氣와 邪氣와의 關係를 論술하고 있고, 또한 五節과 五邪에 대한 鍼刺法을 나누어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刺節眞邪라고 篇名을 지은 것이다.

本篇을 『黃帝內經章句索引』에서는 四章, 『靈樞經白話解』와 『靈樞經校釋』에서는 十九章, 그리고 『黃帝內經靈樞經語譯』에서는 二十三章으로 나누고 있는데, 著者는 그 內容을 檢討하여 四章으로 나누었다. 本篇은 誤植, 錯簡, 假借된 부분도 많고 앞뒤의 文句가 바뀌어 있는 부분도 있어 理解하기가 몹시 어렵다. 따라서 여러 版本과 歷代 註釋家들의 研究成果를 參照하지 않고는 본래의 趣旨를 解得하기 어려운 실정 이므로 본 論文에서는 歷代의 版本과 註釋家들의 見解를 研究하여 校勘과 較註를 하고, 여기에 懸吐와 國譯을 加함으로써 原文의 보다 精確한 理解를 돕고자 한다.

譯』, 『靈樞經校釋』을 參考하여 그 內容에 따라 四章으로 나누었다.

- 다. 懸吐는 傳來의 方式을 基本으로 하였으나 가능한 現代화하려고 노력하였다.
- 라. 校勘은 「表一」의 文獻을 涉獵·調査하였다.
- 마. 字句解는 各家의 註釋을 比較 參照하여 原文의 뜻에 가장 合當하다고 認定되는 音과 訓을 選擇하였다.
- 바. 較註는 「表二」의 研究資料의 註釋들을 같은 內容別로 모았고, 그 가운데 가장 適合하다고 認定되는 註를 國譯하고 '◎'로 표시하였으며, 註釋의 原文들은 脚註處理하여 參考하도록 하였다.
- 사. 直譯은 本文의 文法에 充實하도록 하였다.
- 아. 意譯은 校勘의 考察에서 校正한 內容과 較註에서 確定한 註釋의 內容을 따라 含蓄된 意味까지도 數衍하여 解釋하였다.
- 자. 本 研究에 사용한 各種 符號는 校勘에 '00', 字句解에 '(00)', 較註에 '[00]', 引用文獻에 『00』, 文獻의 章節에 「00」, 脚註는 '1), 2), 3), 4) ·····'의 一連番號로 表示하였다.

## 2. 研究資料

## II. 研究方法 및 資料

### 1. 研究方法

본 篇은 內容을 이해하기 쉽도록 本文과 註釋에 懸吐와 校勘을 하고 字句解·較註·考察·直譯·意譯의 順序로 연구하였다.

가. 原文은 『聚珍倣宋版印本』을 底本으로 하였다.

나. 本문의 단락은 『黃帝內經章句索引』, 『靈樞經白話解』, 『黃帝內經靈樞經校注語

表1. 校勘에 引用한 文獻

番號	書目	略稱
1	元至元己卯胡氏吉林書堂刊本	胡本
2	明成化十年甲午熊氏種德堂刊本	熊本
3	明繡谷書林周曰校重刊本	周本
4	明萬曆二十九年醫統正脈叢書本	統本
5	明金陵尙義齋刊本	金陵本
6	黃以周「內經鍼刺」光緒甲申校刻本	黃校本
7	上海涵芬樓影印道藏本	藏本
8	日本舊抄本	日抄本
9	日本田中清左衛門刻本	日刻本

10	楊上善「黃帝內經太素」	太素
11	皇甫謐「黃帝鍼灸甲乙經」	甲乙
12	孫思邈「千金要方」	千金
12	張介賓「類經」	類經
13	馬蒔「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馬注本
14	張志聰「靈樞集註」	張注本
15	樓英「醫學綱目」	綱目

表2. 較註에 引用한 文獻

番號	註釋家	時代	書名	略稱
1	楊上善	隋	黃帝內經太素	楊
2	張介賓	明	類經	景岳
3	馬蒔	明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馬
4	張志聰	清	靈樞集註	張
5	黃元御	清	黃元御醫書十一種(靈樞懸解)	黃
6	丹波元簡	1803年	靈樞識	丹波
7	楊維傑	1976年	黃帝內經靈樞譯解	傑
8	小曾戶洋	1981年	黃帝內經古注選集·靈樞講義	講義
9	陳璧琉·鄭卓人	1962年	靈樞經白話解	白話解
10	郭竊春	1981年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語譯
11	河北醫學院	1982年	靈樞經校釋	校釋

### III. 本 論

#### 第一章. 刺有五節

【原文】

黃帝問於岐伯曰 余聞刺有五節이라하니 奈何오  
 岐伯이 曰 固有五節하니 一曰振埃(1)요 二  
 曰發矇(2)이요 三曰去爪(2)(3)요 四曰徹衣  
 3)(4)요 五曰解惑(5)이니이다

黃帝曰 夫子言五節이나 余未知其意니이다

岐伯이 曰 振埃者는 刺外經(6)하야 去陽病  
 也요 發矇者는 刺府輸(7)하야 去府病(4)也요 去  
 爪者는 刺關節肢絡也(5)요 徹衣者는 盡刺諸陽之  
 奇輸也(8)요 解惑者는 盡知調陰陽하야 補寫有

餘不足하야 相傾移(9)也니이다

黃帝曰 刺節에 言振埃를 夫子乃言刺外經하  
 야 去陽病이라하니 余不知其所謂也라 願卒聞  
 之하노이다

岐伯이 曰 振埃者는 陽氣大逆하야 上滿於胸  
 中하야 憤懣(6)(10)肩息커나 大氣逆上하야 喘喝  
 坐伏하고 病惡埃煙하야 餉(11)不得息(7)하니 請  
 言振埃컨대 尙疾於振埃니이다

黃帝曰 善하노이다 取之는 何如오

岐伯이 曰 取之天容이니이다

黃帝曰 其效上氣하야 窮誦(12)胸痛者는 取  
 之奈何오

岐伯이 曰 取之廉泉이니이다

黃帝曰 取之에 有數乎아

岐伯이 曰 取天容者는 無過一里(8)(13)요 取  
 廉泉者는 血變而止(9)니이다

黃帝曰 善哉라 黃帝曰 刺節에 言發矇이나  
 余不得其意라 夫發矇者는 耳無所聞하며 目無  
 所見이어늘 夫子乃言刺府輸하야 去府病이라하  
 니 何輸使然고 願聞其故하노이다

岐伯이 曰 妙乎哉라 問也시여 此는 刺之大  
 約이요 鍼之極也요 神明之類也니 口說書卷이  
 猶不能及也라 請言發矇耳컨대 尙疾於發矇也니  
 이다

黃帝曰 善하노이다 願卒聞之하노이다

岐伯이 曰 刺此者는 必於日中에 刺其聽宮  
 10)이니 中其眸子하고 聲聞於耳(11)면 此其輸也  
 니이다

黃帝曰 善하노이다 何謂聲聞於耳오

岐伯이 曰 刺邪에 以手堅按其兩鼻竅而疾偃  
 12)이면 其聲이 必應於鍼也(13)니이다

黃帝曰 善하노이다 此所謂弗見爲之요 而無  
 目視나 見而取之니 神明相得者也니이다

黃帝曰 刺節에 善(14)去爪를 夫子乃言刺關節  
 肢絡(15)이라하니 願卒聞之하노이다

岐伯이 曰 腰脊者는 身之大關節也요 肢脛者  
 는 人之管이니 以趨翔(14)也(16)요 莖垂者는 身  
 中之機며 陰精之候며 津液之道也라 故로 飲食

不節하며 喜怒不時하여 津液內溢하면 乃下留於掌하여 血道17)不通하고 日大不休하여 俛仰不便하고 趨翔不能이라 此病은 榮然18)(15)有水하여 不上不下하니 鍍石所取요 形不可匿하고 常19)不得蔽라 故로 命曰去爪니이다

帝曰 善하노이다 黃帝曰 刺節에 言撤衣를 夫子乃言盡刺諸陽之奇輸니 未有常處也라하니 願卒聞之하노이다

岐伯이 曰 是는 陽氣有餘而陰氣不足이라 陰氣不足則內熱하고 陽氣有餘則外熱하니 內熱相搏20)하면 熱於懷炭하여 外畏綿帛近21)하여 不可近身하고 又不可近席22)이라 腠理閉塞則汗不出하며 舌焦脣槁하며 腊乾唼燥하여 飲食에 不讓美惡하니이다

黃帝曰 善하노이다 取之奈何

岐伯이 曰 或23)之於其天府大杼하여 三痛하고 又刺中膂하여 以去其熱하고 補手足太陰하여 以出其汗하면 熱去汗稀하여 疾於徹衣니이다

黃帝曰 善하노이다 黃帝曰 刺節에 言解惑을 夫子乃言盡知調陰陽하여 補寫有餘不足하여 相傾移也라하니 惑을 何以解之

岐伯이 曰 大風在身하면 血脈偏虛하여 虛者는 不足하고 實者는 有餘하니 輕重不得(16)하여 傾側宛伏(17)하며 不知東西하며 不知南北하며 乍上乍下하며 乍反乍覆24)하여 顛倒無常하여 甚於迷惑하니이다

黃帝曰 善하노이다 取之는 奈何

岐伯이 曰 寫其有餘하고 補其不足하여 陰陽平復이니 用鍼若此면 疾於解惑이니이다 黃帝曰 善하노이다 請藏之靈蘭之室하여 不敢妄出也호리이다

#### 【校勘】

- 1) 發蒙: 『太素』卷二十二「五節刺」, 『甲乙』卷十二第五에는 「發蒙」으로 되어 있다.
- 2) 去爪: 『甲乙』卷九第十一는 「衣」로 되어 있다.
- 3) 徹衣: 張注本에는 「撤衣」로 되어 있다.
- 4) 去腑病: 『甲乙』卷十二第五 「以去腑病」으

로 되어 있다.

5) 刺關節肢絡也: 『太素』卷二十二「五節刺」, 『甲乙』卷九第十一에는 「刺關節之支絡也」로 되어 있다.

6) 憤臙: 『甲乙』卷九第三과 張注本에는 「憤臙」으로 되어 있다.

7) 病惡埃煙 飢不得息: 『甲乙』卷九第三에는 「咽噎 飢不得息」으로, 熊本과 周本, 明本, 藏本, 日抄本에는 「病惡埃煙 飢不得息」으로 되어 있다.

8) 無過一里: 『太素』卷二十二에는 「五節刺 無過一里而止」로, 『甲乙』卷九第三에는 「深無一里」로 되어 있다.

9) 血變而止: 『甲乙』卷九第三에는 「血變乃止」로 되어 있다.

10) 聽宮: 『甲乙』卷十二第五에는 「耳聽」으로 되어 있다.

11) 聲聞於耳: 『甲乙』卷十二第五에는 「聲聞於外」로 되어 있다.

12) 刺邪以手堅按其兩鼻竅而疾偃: 『太素』卷二十二「五節刺」에는 「邪刺以手堅按其兩鼻竅而疾偃」으로, 『甲乙』卷十二第四에는 「已刺以手堅按其兩鼻竅而疾偃」로 되어 있다.

13) 必應於鍼也: 『甲乙』卷十二第五에는 「必應其中」으로 되어 있다.

14) 善: 『太素』卷二十五「五節刺」, 馬注本, 張注本, 日刻本에는 「言」으로 되어 있다.

15) 肢絡: 『太素』卷二十五「五節刺」, 『甲乙』卷九第十一에는 「支絡」으로 되어 있다.

16) 肢脛者 人之管以趨翔也: 『太素』卷二十五「五節刺」에는 「肢脛者 人之所以趨翔也」로, 『甲乙』卷九第十一에는 「肢脛者 人之趨翔也」로 되어 있다.

17) 血道: 『太素』卷二十五「五節刺」, 『甲乙』卷九第十一에는 「水道」로 되어 있다.

18) 榮然: 『太素』卷二十五「五節刺」, 『甲乙』卷九第十一에는 「榮然」으로 되어 있다.

19) 常: 『甲乙』卷九第十一에는 「裳」으로 되어 있다.

20) 內熱相搏: 『甲乙』卷九第十一에는 '兩熱相搏'으로, 『太素』卷二十五「五節刺」에는 '與熱相薄'으로 되어 있다.

21) 外畏綿帛近: 『太素』卷二十五「五節刺」에는 '外重絲帛衣'로, 『甲乙』卷九第十一에는 '衣熱'로 되어 있다.

22) 又不可近席: 『甲乙』卷九第十一에는 '身熱又不可近席'으로 되어 있다.

23) 或: 日刻本에는 '取'로 되어 있다.

24) 乍反乍覆: 『甲乙』卷十第二에는 '反覆'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1) 振埃: 埃는 작은 먼지를 말하니, 振埃는 먼지를 털어 낸다는 말이다.

(2) 發矇: 矇은 蒙과 통하는 데 눈이 잘 안 보이는 것을 말하니, 發蒙은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없애 잘 보이게 한다는 뜻이다.

(3) 去爪: 손톱을 제거함.

(4) 徹衣: 옷을 벗음, 徹은 撤과 通.

(5) 解惑: 疑惑을 풀.

(6) 外經: 經脈中 四肢, 皮膚로 가는 經路를 말함.

(7) 府輸: 六府의 輸穴로 모두 三十六 輸穴이 있다.

(8) 盡刺諸陽之奇輸: 天府, 大杼, 中膂를 刺鍼하여 熱을 없애고 手足太陰經을 刺鍼하여 汗을 내는 刺法. 五十九刺法 혹은 六腑之別絡으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

(9) 相傾移: 陰陽을 서로 反復하여 變化시킴, 陰陽의 偏差를 바로 잡아 均衡을 이루어줌.

(10) 臆: 눈 부릅뜬 진.

(11) 餉: 밥 채할(飯室也) 열, 열.

(12) 窮誦: 氣가 제대로 퍼지지 않음.

(13) 一里: 鍼刺의 깊이를 一寸으로 하거나, 留鍼時間을 사람이 一里걸어갈 정도로 하라는 말임.

(14) 趨翔: 활개치며 빨리 걸음.

(15) 榮然: 榮은 榮의 誤字로 보이는데, 榮然은 물이 물려 있는 모양새를 말함.

(16) 輕重不得: 四肢의 輕重이 서로 어울리지 않음.

(17) 傾側宛伏: 몸이 뒤로 경사져 굽어지는 모양.

【較註】

[1] 岐伯曰 固有五節 一曰振埃 二曰發矇 三曰去爪 四曰徹衣 五曰解惑 黃帝曰 夫子言五節 余未知其意 岐伯曰 振埃者 刺外經 去陽病也 發矇者 刺府輸 去府病也 去爪者 刺關節肢絡也 徹衣者 盡刺諸陽之奇輸也 解惑者 盡知調陰陽 補寫有餘不足 相傾移也

楊·馬·張·景岳·校釋·語譯은 “이는 그 五節을 刺鍼하되 먼저 各 經의 效用을 指摘하여 말한 것이다. 振埃는 티끌과 먼지를 털어 내는 것이니 그 方法이 外經을 刺鍼하여 陽氣가 크게 逆亂된 病을 제거하는 것이다. 發矇은 눈과 귀가 어두운 것을 여는 것이니 그 方法이 六腑輸穴을 刺鍼하여 六腑의 病을 제거하는 것이다. 去爪는 손톱을 자르는 것과 같으니 그 方法이 關節과 四肢肢脈(혹은 孫絡)을 刺鍼하는 것이다. 徹衣는 옷을 벗는 것과 같으니 그 方法이 모든 陽分의 別絡을 刺鍼하는 것이다. 解惑은 迷惑을 푸는 것과 같으니 그 方法이 陰陽諸經의 虛實을 모두 알아 그 病勢를 變化시켜 陰陽平衡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sup>1)</sup>고 하였다.

1) 楊: 節은 約也니 謂刺道節約也라 此言其名也라 以下는 言刺道五節之意也라 外經者는 十二經脈이 入府藏者以爲內經이요 行於四肢及皮膚者以爲外經也라 六腑三十六輸가 皆爲府輸也라 關은 四肢也라 四關諸節은 人餘大節也라 支絡은 孫絡也라 諸陽奇輸를 謂五十九刺라 故로 曰盡也라 寫陰補陽하고 寫陽補陰하야 使平이라 故로 曰相傾移也라 ●馬: 此는 言刺其五節而先指各經之所用也라 振埃者는 如振落振埃也니 其法이 刺其外經하야 以去陽氣大逆之病耳라 發矇者는 開發矇瞶也니 其法이 刺其腑輸하야 以去其腑病耳라 去爪者는 如脫去其爪也니 其法이 刺其關節肢絡耳라 徹衣者는 如徹去衣服也니 其法이 盡刺諸陽之奇

[2]黃帝曰 刺節言振埃 夫子乃言刺外經 去陽病 余不知其所謂也 願卒聞之 岐伯曰 振埃者 陽氣大逆 上滿於胸中 憤臏肩息 大氣逆上 喘喝坐伏 病惡埃煙 餽不得息 請言振埃 尙疾於振埃 黃帝曰 善 取之何如 岐伯曰 取之天容 黃帝曰 其效上氣 窮黽胸痛者取之奈何 岐伯曰 取之廉泉 黃帝曰 取之有數乎 岐伯曰 取天容者 無過一里 取廉泉者 血變而止

楊·校釋은 “以下的 問答는 五節刺法의 意義를 해석한 것이다. 埃는 작은 먼지이다. 이 三種의 陽性疾病은 먼지나 煙氣보다 싫은 것이니, 그 病이 氣滿閉塞, 喘息하게 되어 마치 먼지가 사람에게 들어가 氣道를 막은 것과 같

다. 刺鍼을 하면 病이 제거되는 것이 먼지를 없애는 것보다 빠르기 때문에 振埃라고 한 것이다. 一里는 一寸이다.”<sup>2)</sup>고 하였고,

馬·張·景岳·語譯은 “陽邪가 上部에 있기 때문에 胸中에 充만하여 憤臏肩息과 氣逆喘喝의 증상이 된 것이고, 먼지나 연기와 같아 목이 막혀 숨을 쉴 수 없는 등의 症狀이 생긴 것이다. 上部의 邪氣를 다스리는 것은 먼지를 털어 내는 것보다 빠르므로 그 이름을 振埃라고 한 것이다. 簡은 옛날의 噎字이니 밥을 잘 먹지 못하는 것이다. 天容은 手太陽經穴이고, 廉泉은 任脈穴이다. 無過一里는 사람이 一里 걸어갈 정도의 시간을 말하고 血變은 血脈이 소통되어 血色이 變하는 것이다.”<sup>3)</sup>고 하였다.

輸耳라 解惑者는 如解其迷惑이니 其法이 盡知調陰陽諸經之虛實하야 以移其病也라 ○張: 此篇은 論眞氣遊行出入於肢節皮膚經脈之間하니 皆當調之和平하야 導其通利라 眞氣者는 所受於天與穀氣하야 并而充身者也라 受於天者는 先天所生之精氣요 穀氣者는 水穀所生之營衛宗氣津液也라 節之交는 三百六十五會니 神氣之所遊行出入이라 故로 曰刺節이요 有因眞氣不調하야 有爲邪氣所阻라 故로 曰眞邪라 ○景岳: 振埃者는 猶振落塵埃라 故로 取其外經이라야 可以去陽病也라 發蒙者는 猶開發蒙瞶라 故로 刺其府輸라야 可以治府病也라 去爪者는 猶脫去餘爪라 故로 取關節肢絡이라야 可以治血道不通之病也라 徹衣者는 猶徹去衣服이라 故로 當盡刺諸陽之奇輸也라 解惑者는 猶解其迷惑이라 故로 在盡知陰陽이니 調其虛實이라야 可以移易其病也라 ○校釋: 一曰振埃 二曰發蒙 三曰去爪 四曰徹衣 五曰解惑은 指刺五節의 鍼法이라 埃는 微塵이니 振埃는 卽振落振埃라 蒙은 目不明이니 發蒙은 卽開發蒙瞶의 意思라 爪者는 指甲之謂니 去爪는 就是脫去餘爪라 徹衣는 指脫去이라 解惑은 解除迷惑의 意思라 這是用形象의 比喻 說明這五種刺法의 功效라 外經은 指行于四肢及淺表部位의 經脈이라 相傾移는 謂相互反復變化라 傾은 可釋爲反復이니 淮南子原道訓에 持盈而不傾이라하여늘 高注에 傾은 覆也라하고 詩小雅雨無正에 覆出爲惡이라하여늘 傳에 覆은 反也라하니라 移는 可釋爲變化니 文選洛神賦에 于是精移神駭라하여늘 善注에 移는 變也라하니 陰陽補瀉不可拘執이라 故로 謂相互反復變化也라 ○語譯: 刺有五節은 刺法에 有五箇簡要標準이라

- 2) 楊: 以下問答는 解釋五刺節義라 埃는 塵微也라 謂此三種陽疾은 惡於埃塵煙氣하니 其病이 令人氣滿閉塞하며 得喘息하야 言其埃也라 刺之去病이 疾於振埃라 故로 曰振埃也라 一里는 一寸也라 故로 明堂刺天容□一寸也라하니라 ○校釋: 憤臏肩息은 是形容胸部氣滿發脹 聳肩而呼吸의 樣子라 餽不得息의 餽은 古噎字니 形容咽部象被異物儲塞而不得呼吸이라 窮黽은 形容氣機不得伸展하야 言語難出이라 無過一里의 里는 寸의 意思니 無過一里는 就是不要超過一寸의 意思라 血變은 血絡疏通의 意思라
- 3) 馬: 此는 承上文而詳言振埃之義也라 刺法用振埃者는 陽氣大逆하야 上滿於胸中하야 氣憤而脹하며 竦肩而息하고 大氣逆於上하야 爲喘爲喝하며 坐伏不常하며 病勢內煩하야 甚惡埃煙하야 餽不得息하니 乃行振埃之法이라야 效亦甚捷이라 其法이 當取之天容이니 係手太陽小腸經이라 如有效而上氣하야 窮黽胸痛則當取之廉泉이니 係任脈經穴이라 但所取之數在 天容者는 無過人行一里許而止요 鍼在廉泉者는 至其血變而卽止鍼耳라 ○張: 此는 陽氣逆於內而不得充行於形身也也라 陽氣者는 陽明水穀所生之氣大氣宗氣也니 陽氣大逆 故로 憤臏肩息이요 大氣逆上 故로 喘喝坐伏也라 六元正紀大論曰 陽明所至爲振埃라하니 病惡埃煙 餽不得息은 陽明之氣病也라 陽明者는 土也니 請言振發其陽明之氣하면 疾於振發其塵埃也라 天容은 手太陽小腸之經이니 刺之以通陽氣之逆이라 黽者는 語塞也라 其效上氣하야 窮黽胸痛者는 所受於天之氣가 上逆不得合并而充身也라 故로 取任脈之廉泉하야 以通腎臟之逆氣라 一里者는 如人行一里라 其氣已通은 言其速也라 血變者

[3]黃帝曰 刺節言發朦 余不得其意 夫發朦者 耳無所聞 目無所見 夫子乃言刺府輸去府病 何輸使然 願聞其故 岐伯曰 妙乎哉問也 此刺之大約 鍼之極也 神明之類也 口說書卷 猶不能及也 請言發朦耳 尙疾於發朦也 黃帝曰 善 願卒聞之 岐伯曰 刺此者 必於日中 刺其聽宮 中其眸子 聲聞於耳 此其輸也 黃帝曰 善 何謂聲聞於耳 岐伯曰 刺邪以手堅按其兩鼻竅而疾偃 其聲必應於鍼也 黃帝曰 善 此所謂非見爲之而無目視 見而取之 神明相得者也

楊·景岳·黃은 “귀에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눈에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六腑輸穴을 刺鍼하면 낮게 할 수 있기 때문에 發朦이라고 한 것이다. 發朦보다 빠르다고 한 것은 효과가 그 만큼 빠르다는 말이다. 日中은 陽이 旺盛해져 氣가 잘 운행되는 시간이다. 聽宮은 手太陽輸穴로서 그 脈이 눈과 서로 통하기 때문에 눈동자에 그 반응이 오는 것이니, 刺鍼時에 소리가 귀로 應하면 그 곳이 바로 그 穴에 해당이 된다. 이는 소리로 徵驗해 보는 방법이니, 그 穴에 刺鍼하고 손으로 코를 꼭 누른 다음 재빨리 누워 안정을 취하면 그 소리가 바로 鍼에 반응한다. 病이 걸로 잘 드러나지 않을 때에 눈으로 보지 않고도 病證을 파악해 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神明的 경지에 오른 오묘한 醫術이다.”<sup>4)</sup>고 하였고,

는 通其血絡也라 ●景岳: 陽邪在上 故로 滿於胸中하야 爲憤臏肩息과 氣逆喘喝이요 如埃如煙하야 飢不得息等證이라 治在上者는 尙疾於振埃니 謂其疾如拂塵也라 臏은 昌眞切이요 飢은 古噎字니 食不下也라 天容은 手太陽經穴이라 廉泉은 任脈穴이라 無過一里는 如人行一里許也요 血變은 血色變也라 ○黃: 憤臏肩息은 胸滿氣阻 喘氣肩搖也라 病惡埃煙은 惡見煙塵也 飢不得息 咽喉飢塞하야 不得布息也라 天容은 手太陽穴이라 一里는 鍼刺之數也라 ○白話解: 大氣逆上의 大氣는 是指宗氣니 卽積於胸中氣海의 氣라 ○語譯: 憤臏의 臏은 是臏誤라 憤臏은 謂發脹이라

4) 楊: 朦은 謂目不明也라 刺節發朦은 謂刺去朦者也라 神明은 謂是耳目去朦得明이라 故로

張은 “이는 神氣가 七竅에 통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朦은 귀로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눈으로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니 上竅가 不通된 것이다. 聽宮은 手太陽經이니 心의 表裏經인 小腸經의 輸穴이다. 眸子는 귓바퀴이니 귀에 있는 聽宮을 刺鍼하면 눈이 잘 보이는 것은 耳竅와 目竅가 서로 통하기 때문이다. 刺鍼할 때에 손으로 코를 꼭 막고 재빨리 누우면 그 소리가 鍼에 응하는 것은 耳竅와 鼻竅가 서로 통해 있기 때문이다. 七竅의 不通에 유독 手太陽을 취하면 心神의 氣가 통하여 七竅가 다 원활해지는 것은 神明이 七竅로 통하기 때문이다. 心은 陽中の 太陽이기 때문에 日中에 刺鍼해야 한다.”<sup>5)</sup>고 하였으며,

曰神明類也라 發朦愈疾之速得於神은 言書所不及也라 日中은 正陽이라 故로 開耳目하니 取日中也라 手太陽脈支者는 至目兌眇하야 卻入耳中하고 手少陽脈支者는 從耳後로 入耳中하야 出走耳前하야 至目兌眇라 故로 此三脈이 皆會耳目聽宮하고 俱連目中眸子라 眸子는 目中瞳子也라 刺聽宮輸時에 朦朧速愈라 故로 得聲聞於耳也라 鍼聽宮時에 按鼻仰臥者는 感氣合出於耳目卽耳通目明矣라 此之妙者는 得之於神明이니 非由有目而見者也라 ●景岳: 耳無所聞 目無所見者는 刺府輸면 可愈라 故로 曰發朦이라 疾於發朦은 取效之速也라 日中은 陽王氣行之時也라 聽宮은 手太陽輸也니 其脈이 與目相通이라 故로 能中其眸子요 刺之而聲應於耳면 乃其穴也라 此는 驗聲之法也니 刺其穴하고 以手堅按鼻孔而疾爲偃臥면 其聲이 則應於鍼也라 謂病無形見에 有不必相見而取者는 眞有神明相得之妙也라 ○黃: 夫發朦者는 耳無所聞하고 目無所見하니 是以로 發其蒙蔽하야 使之見聞也라 乃言刺府輸하야 去府病하니 此何府之輸使之雙聾如此也오하니라 聽宮은 手太陽穴이요 眸子는 當是足少陽之瞳子膠也라 邪氣在經에 刺之以手堅按其兩鼻竅而疾偃이면 氣不下通而鼓動於鍼空之內하니 靜而聽之면 其聲必應於鍼下也라

5) ●張: 此는 言神氣之通於七竅也라 朦者는 耳無所聞하며 目無所見하니 上竅之不通也라 聽宮은 手太陽之經이니 心之府輸也라 眸子는 耳中之珠니 刺耳之聽宮에 尙疾於發目之朦은 是耳竅與目竅之相通也라 以手堅按其兩鼻竅而疾偃其聲必應其耳中之鍼은 是耳竅與鼻竅之相通也라 在上之七竅不通에 獨取手太陽하야 以

馬·校釋은 “中其眸子의 眸子는 瞳子이니 中其眸子는 鍼刺의 效果反應이 瞳子에 까지 미치는 것을 형용한 것이다. 이것은 聽宮穴과 눈동자는 서로 經脈으로 통해 있기 때문이다. 刺邪以手堅按其兩鼻竅而疾偃의 偃은 閉口怒腹으로 해석해야 한다.”<sup>6)</sup>고 하였다.

[4]黃帝曰 刺節言去爪 夫子乃言刺關節肢絡 願卒聞之 岐伯曰 腰脊者 身之大關節也 肢脛者 人之管 以趨翔也 莖垂者 身中之機 陰精之候 津液之道也 故飲食不節 喜怒不時 津液內溢 乃下留於壘 水道不通 日大不休 俛仰不便 趨翔不能 此病榮然有水 不上不下 鈹石所取 形不可匿 常不得蔽 故命曰去爪

楊·馬·黃은 “이는 去爪의 意義를 상세히 이야기한 것이다. 去爪의 法이 關節과 肢絡을 刺鍼하는 것은 바로 腰脊은 몸의 大關節이고, 肢脛은 사람의 管鍵(열쇠)이며, 莖垂는 인체의 機關이니 陰精과 津液이 나오는 길이다. 그러므로 飲食과 喜怒를 조절하지 못하여 津液이 안으로 넘치면 壘丸으로 下流하여 水道가 通하지 않고 그 형상이 날로 커져 몸을 구부렸다 폈다 하기도 불편하고 걸어 다니기도 불편해 진다. 이 病은 水氣가 쌓이고 凝結되어 운행되지 못하므로 浮腫이 위로 올라가지도 않

고 아래로 내려가지도 않는다. 鈹石으로 치료하면 陰囊浮腫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숨기고 隱蔽할 필요가 없다.”<sup>7)</sup>고 하였고,

張·景岳·校釋은 “腰脊이라는 것은 몸을 直立할 수 있게 해 주므로 몸의 大關節이 되는 것이고, 肢脛은 몸을 앞뒤로 움직이게 하므로 사람의 關鍵이니 管은 鍵의 뜻이다. 莖垂는 前陰의 宗筋이니 命門元氣의 盛衰가 모두 여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몸 중의 機關이 되는 것이고, 精液이 여기에서 배설되기 때문에 陰精의 상태를 살필 수 있어 津液의 道路가 되는 것이다. 飲食을 절제하지 못하면 病이 太陰과 陽明에 있게 되고 喜怒를 조절하지 못하면 病이 少陰과 厥陰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그

7) 楊: 爪는 謂人之爪甲이니 肝之應也라 肝足厥陰脈이 循於陰器라 故로 陰器有病하면 如爪之餘를 須去之也라 或水字錯爲爪字耳라 腰脊於手足關節爲大라 故로 大關節也라 陰莖在要라 故로 中身이요 陰莖垂動有造化라 故로 精從莖中出이라 故로 爲陰精□□爲津液道也라 飲食不節은 言飲食過度라 言其喜怒不時는 反春夏也라 言飲食多하면 水溢하야 流入陰器囊中也라 水道既閉하면 日日長大也라 榮然是 水聚也라 不上者는 上氣不通이요 不下者는 小便及氣下不洩也라 蔽는 塞也라 ◎馬: 此는 詳言去爪之義也라 夫去爪之法이 所以爲刺關節肢絡者는 正以腰脊爲身之大關節이요 肢脛爲人之管이요 莖垂爲身中之機니 陰精之候요 津液之道也라 故로 飲食喜怒不調하야 津液內溢하면 乃下留於壘하야 水道不通하고 其狀日以益大하야 俛仰甚有不便하고 趨翔甚有不能이라 此病榮然有水하야 凝積不行하야 所以不上且不下也라 若用鈹石之鍼以取之면 則形雖大나 而不可復匿하고 日常不得隱蔽其水矣라 ○黃: 腰脊者는 身之大關節也요 四肢膝脛者는 人之管以趨翔也요(管은 主也라) 莖垂者는 宗筋之聚요 身中之機니(宗筋은 所以束骨而機關이라) 陰精輸泄之候요 津液流注之道也라 故로 飲食不節하고 喜怒不時하면 傷其脾胃하야 疏泄失政하고 津液內溢하야 乃下流於壘丸이라 經絡塵瘀하야 水道不通하면 壘丸日大不休하야 以致腰脊俛仰不便하고 肢脛趨翔不能이라 此病은 榮然內有積水하야 不上不下하야 停貯陰囊이라 鈹石所取면 形不可匿하고 常不得匿하니 取之則去가 易如去爪라 故로 命曰去爪라

通心神之氣而七竅皆利는 是神明之通於七竅也라 心爲陽中之太陽이라 故로 必於日中取之라

6) 馬: 此는 承上文而詳言發矇之義也라 夫發矇者는 其人耳無所聞하며 目無所見하니 今言刺府輸以去府病이라하니 其輸不知何在오한대 伯言此乃刺法之大約이니 卽此一腑以觀之면 眞足以發矇也라 如耳無所聞者는 卽於日中에 刺其手太陽小腸經之聽宮穴하니 其氣與眸子相通하야 當中其眸子也라 若聲則與耳自相聞矣니 何也오以手堅按其兩鼻之竅而急偃其聲이면 頃則聲必應於耳也라 此所謂彼雖弗見所爲而不必有目以爲視나 吾能見而取之니 眞有神明相得之妙也라 ◎校釋: 中其眸子의 眸子는 卽目中瞳子니 中其眸子는 形容鍼刺의 效應이 可以及瞳子라 這是因爲聽宮穴與眸子有經脈相通的緣故라 刺邪以手堅按其兩鼻竅而疾偃의 偃은 這裏可作閉口怒腹解라

津液이 안으로 넘치면 拳丸으로 下流하여 정체되므로 날마다 커져 숨길 수 없는 등의 증세가 있게 되니 바로 癩疔과 같은 부류이다. 이를 치료할 경우에는 마땅히 어느 經에 병이 있는지를 살펴 그 關節과 肢絡을 刺鍼해야 한다. 그러므로 去爪라 한 것이니 筋살을 없애는 것과 같다.”<sup>8)</sup>고 하였다.

[5]黃帝曰 刺節言徹衣 夫子乃言盡刺諸陽之奇輸 未有常處也 顯卒聞之 岐伯曰 是陽氣有餘而陰氣不足 陰氣不足則內熱 陽氣有餘則外熱 內熱相搏 熱於懷衣 外畏綿帛近 不可近身 又不

可近席 腠理閉塞則汗不出 舌焦脣槁 腊乾噤燥 飲食不讓美惡 黃帝曰 善 取之奈何 岐伯曰 取之於其天府大杼三病 又刺中膺以去其熱 補足手太陰以出其汗 熱去汗稀 疾於徹衣

楊·馬·張·校釋은 “이는 윗 글에 이어 徹衣의 意義를 상세히 이야기한 것이다. 徹衣를 치료하는 法이 陽經의 奇輸를 모두 刺鍼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陽氣는 有餘하고 陰氣는 不足하기 때문이다. 陰氣가 不足하면 안에 熱이 있게 되고 陽氣가 有餘하면 밖에 熱이 있게 되어, 內熱은 석탄을 품고 있는 것과 같이甚하고 그 外熱은 솜옷이나 비단을 싫어하고 사람 몸이나 따뜻한 자리를 싫어하니 이 때에는 腠理가 閉塞되어 땀이 나오지 않고 혀는 타며 입술은 바짝 말라 건조해지고 목은 말라 맛을 구분할 수 없게 된다. 이를 刺鍼할 경우에는 手太陰肺經의 天府穴과 足太陽膀胱經의 大杼穴을 취하여 各各 三次에 걸쳐 침을 놓는데, 세 번에 걸쳐 침을 놓기 때문에 三病라고 한 것이다. 또 足太陽膀胱經의 中膺內俞를 취하여 熱을 없애고 足太陰脾經과 手太陰肺經을 補하여 發汗시키는데 이렇게 하면 熱은 제거되고 體表에서 땀은 나오지 않게 되어 그 효과가 옷을 벗는 것처럼 신속한 것이다.”<sup>9)</sup>고 하였고,

8) 張: 此는 言津液隨神氣者하야 滲灌於諸節者也라 津液生於中焦하야 陽明滲灌於骨하니 所以濡筋骨而利關節이라 腰脊者는 從大椎至尾骶하야 乃身之大關節也요 手足肢脛之骨節은 人之管以趨翔이라 蓋津液滲灌於肢脛則筋骨利而脛能步趨하고 肢能如翼之翔也라 莖垂者는 腎之前陰이니 乃宗筋之會요 腎者는 胃之機關이니 主受藏津液이라 夫腎臟所藏之津液이 從宗脈而上濡於空竅라 故曰 莖垂者는 身中之機니 陰精之候요 津液之道也라 此는 言胃腑所生之津液이 隨神氣而滲注於骨節하고 腎臟所藏之津液이 從宗脈而上濡於空竅하니 如飲食不節하고 喜怒不時하면 則津液內溢하야 乃下留於掌囊하야 血道不通하고 日大不休하야 俯仰不便하고 趨翔不能이라 此病은 榮然有水하야 不上不下하니 當用鉞石取之라 形은 謂前陰이요 爪者는 筋之餘니 謂形不可藏匿하고 常不得遮蔽하야 有若去其宗筋이라 故曰 命曰去爪라 ●景岳: 腰脊이 所以立身이라 故曰 爲身之大關節이요 肢脛이 所以趨翔이라 故曰 爲人之管이니 管은 鍵也라 莖垂者는 前陰宗筋也니 命門元氣盛衰가 具見於此라 故曰 爲身中之機요 精由此泄이라 故曰 可以候陰精而爲津液之道라 飲食不節하면 病在太陰陽明하고 喜怒不時하면 病在少陰厥陰이라 故曰 其津液이 內溢則下留於掌하야 爲日大不休와 不可蔽匿等證이니 蓋即癩疔之類라 治之者는 當察在何經하야 以取其關節肢絡이라 故曰 命曰去爪者니 猶去其贅疣也라 ○校釋: 肢脛者 人之管以趨翔也의 管을 張介賓釋爲鍵하니 亦可解作樞要요 見丹波元簡引荀子儒孝篇注라 趨翔은 形容走路時人的肢脛活動有如鳥羽之飛翔이라 榮然有水 不上不下的 榮然은 是水聚의 樣子라 由于水蓄在內하야 致使上焦不通하고 下焦不泄이라

9) 楊: 藏之陰氣는 在內하고 府之陽氣는 在外라 陰氣在外하야 陰氣不足하면 陽乘之라 故曰 內熱薄停라 重絲綿衣는 複衣也라 腊은 肉乾也라 內熱甚渴 故曰 飲不擇美惡也라 大杼內輸는 皆是足太陽脈氣所發이니 寫陽氣之要穴也라 手太陰은 主氣하고 足太陰은 主穀氣하니 此二陰不足하야 爲陽所乘하면 陰氣不洩하야 以爲熱病이라 故曰 寫盛陽하고 補此二陰하면 陽去二陰得實하야 陰氣得通流라 故曰 汗出熱去得愈가 疾於徹衣라 故曰 曰徹衣也라 ●馬: 此는 承上文而詳言徹衣之義也라 夫徹衣之法이 以爲盡刺陽經之奇輸者는 正以陽氣有餘而陰氣不足이라 惟陰氣不足則內有熱하고 如陽氣有餘則外有熱하야 其內熱甚如懷炭하고 其外熱畏綿帛而不可近身與席하니 時則腠理閉塞하야 汗不得出하고 其舌焦하며 其脣槁而腊乾하고 其噤燥하야 凡口中無味하야 美惡莫辨이라 刺之者는 亦惟取其手太陰肺經之天府穴과

景岳은 “陽氣가 有餘하고 陰氣가 不足한 것은 陽邪가 盛하고 眞陰이 衰해진 것이다. 熱이 석탄을 안고 있는 것 같다고 한 것은 熱이 甚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外畏綿帛近은 옷을 입지 않으려는 것이고, 不可近身은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며, 不可近席은 憎寒의 뜻이다. 腊乾은 肌肉이 乾燥한 것이고, 飲食不讓美惡은 음식 맛을 모르는 것이다. 天府는 手太陰經穴이고, 大杼와 中膂는 足太陽經穴이니 이를 자침하면 다 熱을 없앨 수 있다. 또 足太陽脾經과 手太陰肺經을 補하여 汗을 내면 熱은 없게 되고 汗은 그쳐 옷을 벗는 것처럼 병이 쉽게 나오니 대개 傷寒에 의한 邪熱部類이다.”<sup>10)</sup>고

足太陽膀胱經之大杼穴하야 各三次하니 其刺瘡有三이라 故로 爲三瘡也라 又取足太陽膀胱經之中膂內俞以去其熱하고 又補足太陰脾經手太陰肺經以出其汗하니 由是熱去而汗少하야 其速如徹衣也라 ○張: 此는 因津液不外濡於皮毛하야 以致陽熱盛而不可近席하고 不上濟於心臟하야 以致內熱盛而懷炭이라 蓋陽氣者는 火熱之氣요 陰氣者는 水陰之氣也라 故로 曰盡刺諸陽之奇輸라 奇輸者는 六腑之別絡也라 津液은 生於胃腑水穀之精하야 大腸主津液하고 小腸主液하며 膽者는 中精之腑요 膀胱者는 州都之官이니 津液藏焉이라 是六腑之津液은 從大絡而外濡於皮膚分肉者也라 心爲陽中之太陽이요 太陽膀胱爲水腑니 水火上下相濟者也라 水液이 不上滋於心하야 以致心火盛而熱如懷炭하야 舌焦脣槁하고 腊乾嗌燥하니 心不和라 故로 飲食不知味也라 或之於其者에 謂水穀之津液이 皆藏於膀胱이라가 水液隨太陽之氣하야 運行於膚表하니 或不盡刺諸陽之奇輸면 取之於其天府大杼三瘡하야 使膀胱所藏之津으로 外濡於皮毛하고 又刺太陽經之中膂하야 通津液하야 滋於心臟以去其熱이라 手太陰은 乃金水之生源而外主皮毛하고 足太陰은 主脾而外主肌肉하며 脾主爲胃行其津液者也라 故로 當補足手太陰以出其汗하면 熱去汗稀하야 疾於徹衣之去熱也라 ○校釋: 腊乾의 腊은 鹽漬魚肉稱爲腊이니 腊乾은 在此指肌肉乾枯라

- 10) 景岳: 陽氣有餘 陰氣不足은 陽邪盛而眞陰衰也라 熱於懷炭은 熱之甚也라 外畏綿帛近은 不欲衣也요 不可近身은 畏人氣也이요 不可近席은 憎寒也라 腊乾은 肌肉乾燥也요 飲食不讓美惡은 滋味不能辨也라 天府는 手太陰經穴이요 大杼中膂는 俱足太陽經穴이니 刺此면 皆可以

하였으며,

黃은 “腊乾은 胸乾의 訛傳이다. (乾肉을 腊이라고 하니 뜻이 합당하지 않다.) 飲食不讓美惡은 음식 맛을 모르는 것이다. 天府는 手太陰穴, 大杼中膂는 足太陽穴이다.”<sup>11)</sup>고 하였다.

[6]黃帝曰 刺節言解惑 夫子乃言盡知調陰陽 補寫有餘不足 相傾移也 惑何以解之 岐伯曰 大風在身 血脈偏虛 虛者不足 實者有餘 輕重不得 傾側宛伏 不知東西 不知南北 乍上乍下 乍反乍覆 顛倒無常 甚於迷惑 黃帝曰 善 取之奈何 岐伯曰 寫其有餘 補其不足 陰陽平復 用鍼若此 疾於解惑 黃帝曰 善 請藏之靈蘭之室 不敢妄出也

楊·馬·張·景岳·黃·校釋은 “이는 陰陽이 調和를 잃어 神志가 迷惑해진 경우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다. 火는 陽, 水는 陰이니 水火는 陰陽의 徵兆이다. 火의 精華는 神이 되고 水의 精華는 志가 된다. 大風이 침범하면 血脈이 偏虛하여 虛한 사람은 不足해 지고 實한 사람은 有餘해 지게 된다. 血脈이 偏虛해지면 輕重이 가늘어지고, 陰陽이 조화를 잃게 되면 神志가 迷惑해 진다. 이러한 까닭으로 東西南北을 구분하지 못하고 反覆顛倒하게 된다. 그러므로 有餘한 것을 瀉하고 不足한 것을 補하여 陰陽을 회복시키면 疑惑을 푸는 것보다 빠르게 치료가 된다. 血이라는 것은 神氣이니, 心臟에서 주관하고 腎臟에서 發源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風이 血脈을 傷하게 하면 陰陽이 調和를 잃게 되고 陰陽이 조화를 잃게 되면 神志가 어두워져 迷惑보다 심하게 된다. 이 五節은 神氣의 不調和를 논한 것이기 때문에 刺節이라고 한 것이다. 節이라는 것은 神氣가 遊行

去熱이라 又補足太陰脾經과 手太陰肺經하야 以出其汗하면 熱去汗止而病除하야 其速有如徹衣하니 此는 蓋傷寒邪熱之類也라

- 11) 黃: 腊乾은 胸乾의 訛라(乾肉曰腊이니 於義無當이라) 飲食不讓美惡은 不識美惡也라 天府는 手太陰穴이요 大杼中膂는 足太陽也라

出入하는 곳이니 神의 遊行은 가장 신속하다. 그래서 徹衣나 解惑보다 빠르다고 한 것이다.”<sup>12)</sup>고 하였다.

【校勘에 대한 考察】

1. ‘去爪’가 『甲乙』 卷九第十一에는 ‘去衣’로 되어 있는데, 바로 아래 문장에 ‘徹衣’란 말이 나와 重複되므로 『甲乙』의 기재는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太素』 楊注에서는 ‘爪’는

12) 楊: 大風은 謂是排風等病也라 (輕重不得 傾側 宛伏은) 手足及不能傾側也라 宛은 謂宛轉也라 (不知東西 不知南北은) 心無知也라 (乍上乍下 乍乍覆 顛倒無常 甚於迷惑은) 志昏性失也라 盡知陰陽虛實하여 行於補寫使和라 靈輿之室은 黃帝藏書之府니 今之蘭臺라 故로 □者也라 ○ 馬: 此는 承上文而詳言解惑之義也라 夫解惑以 補虛寫實爲法者는 正以大風在身하여 血脈偏虛 하니 其虛者爲不足而輕하고 其實者爲有餘而重 이라 大體當傾側宛伏하여 雖四方上下가 皆已 反復顛倒하여 其狀이 甚於迷惑이나 刺之者卽 其有餘而寫之하고 不足而補之하면 則陰陽諸經 이 自然平復하여 眞如解惑之速也라 ●張: 此는 言陰陽不調하여 致神志之迷惑也라 夫火爲 陽이요 水爲陰이니 水火者는 陰陽之徵兆也라 火之精爲神이요 水之精爲志라 大風在身則血脈 偏虛하여 虛者不足하고 實者有餘라 血脈偏虛 則輕重傾側矣요 陰陽不調則神志迷惑矣라 是以로 不知東西하고 不知南北而反復顛倒也라 故로 當寫其有餘하고 補其不足하여 陰陽平復하면 疾於解惑이라 夫血者는 神氣也니 心臟所主 而發原於腎이라 是以로 風傷血脈則陰陽不調하고 陰陽不調則神志昏而甚於迷惑也라 此五節은 論神氣不調라 故로 曰刺節이라 節者는 神氣之 所遊行出入이니 神遊最速이라 故로 曰疾於徹衣疾於解惑이라 ○景岳: 風邪在身하면 血脈必 虛하여 正不勝邪 故로 爲輕重傾側等病이요 以其 顛倒無常 故로 曰甚於迷惑이니 此卽中風之 類라 盡知陰陽하여 平其虛實이니 用鍼若此면 疾無不瘳矣라 故로 曰疾於解惑이라 ○黃: 大 風在身에 閉其營衛하여 營衛鬱遏則血脈偏實하고 其風所未閉之經은 則血脈偏虛하니 虛者不 足하고 實乃有餘하여 輕重不相得이라 是以로 傾側宛伏하여 不知東西南北하니 自覺上下反覆 하여 顛倒無常이 此眞甚於迷惑也라 ○校釋: 大風은 指中風偏枯一類의 疾病이라 傾側宛伏은 傾斜反側하고 宛轉俯伏이니 這裏泛指身體左右 前後의 各種運動이라 顛倒無常의 顛倒是 起止 니 顛倒無常은 意指起止不定이라

‘水’가 잘못 쓰여진 것이 아닌가 의심하였는데 본문에서는 水腫病을 예로 들고 있으므로 참 고할 만하다.

2. ‘徹衣’가 張注本에는 ‘撤衣’로 되어 있는데, ‘徹’은 ‘撤’과 통하므로 假借字로 보면 될듯 하다.

3. ‘刺關節肢絡也’가 『太素』 卷二十二 「五節刺」, 『甲乙』 卷九第十一에는 ‘刺關節之支絡也’로 되어 있는데, 문장의 뜻으로 ‘肢’는 ‘支’가 잘못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4. ‘憤臙’이 『甲乙』 卷九第三과 張注本에는 ‘憤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다.

5. ‘善’이 『太素』 卷二十五 「五節刺」, 馬注本, 張注本, 日刻本에는 ‘言’으로 되어 있는데, 앞뒤 문맥으로 보아 이것이 정확하다.

6. ‘肢絡’이 『太素』 卷二十五 「五節刺」, 『甲乙』 卷九第十一에는 ‘支絡’으로 되어 있는데 문맥으로 보아 이것이 정확하다.

7. ‘肢脛者 人之管以趨翔也’가 『太素』 卷二十五 「五節刺」에는 ‘股脛者 人之所以趨翔也’로 되어 있는데, ‘管’의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太素』의 기재가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8. ‘榮然’이 『太素』 卷二十五 「五節刺」, 『甲乙』 卷九第十一에는 ‘榮然’으로 되어 있는데 문맥으로 보아 이것이 정확하다.

【較註에 대한 考察】

1. “刺有五節”의 節의 해석에 있어 楊·語譯 등은 約束, 標準으로 해석하여 鍼刺法의 基準으로 보았으나, 張은 刺鍼하는 장소인 四肢關節로 보았다. 本篇에서 論하고 있는 것이 振埃 등 五種刺法에 대한 방법과 효과이므로 張의 해석은 지나치게 협소하다. 따라서 楊 등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본다.

2. “盡刺諸陽之奇輸”의 해석에 있어 楊은 五十九刺法으로 張은 六腑之別絡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 徹衣刺法에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取之於其天府大杼三痛 又刺中膻以去其熱 補足手太陰以出其汗 熱去汗稀 疾

於徹衣”라 하였으므로 楊·張의 해석은 좀 미흡한 듯 하다.

3. “無過一里”의 一里를 『太素』 등에서는 鍼刺의 깊이로 해석하고 있는데 반해 明清代의 注釋家들은 대개 留鍼時間으로 해석하고 있다. 經穴中에서 三리는 무릅 아래의 三寸을 의미하고, 五리는 天府下 五寸을 의미하므로 一리는 鍼刺깊이로 보아 一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刺邪以手堅按其兩鼻竅而疾偃其聲必應於鍼也”의 偃을 대개의 註釋家들이 글자 그대로 놓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校釋 등은 偃을 堰의 뜻으로 해석하여 코를 막아 소리가 새나가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코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입을 다물어 숨 소리가 새 나가지 않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聽宮穴에 鍼을 놓고 鍼響을 들어 보려면 급히 놓는 것보다는 숨을 참고 들어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를 막고 입으로 숨을 참아 鍼의 反響을 들어 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5. “刺其聽宮 中其眸子”의 眸子를 대부분의 註家들은 눈동자로 해석하여 聽宮穴에 刺鍼하면 그 반응이 눈동자에까지 미친다고 해석하였으나, 張만은 聽宮穴이 있는 귓바퀴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견해로 보인다.

6. “形不可匿 常不得蔽”을 楊 등은 鍼으로 치료하면 陰囊水腫이 없어져 굳이 숨기거나 은폐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였고, 景岳 등은 陰囊水腫의 증상으로 해석하였는데 전체적인 글 뜻을 이해하는 데는 兩者의 견해 모두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7. “不可近身 又不可近席”을 楊 등은 熱이 심하여 다른 사람이나 따뜻한 자리를 싫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景岳만이 憎寒으로 해석한 것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 【直譯】

黃帝가 岐伯에게 묻기를 “내 듣기에 刺法에

五節이 있다고 하니 무엇입니까?”

岐伯이 대답하였다. “참으로 五節이 있으니, 첫 번째는 振埃요 두 번째는 發矇이요 세 번째는 去爪요 네 번째는 徹衣요 다섯 번째는 解惑입니다.”

黃帝가 말씀하였다. “夫자가 五節에 대하여 말씀하였으나 내 그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岐伯이 말하였다. “振埃는 外經을 刺鍼하여 陽病을 제거하는 것이고, 發矇은 府輸를 刺鍼하여 府病을 제거하는 것이며, 去爪는 關節과 肢絡을 刺鍼하는 것이고, 徹衣는 諸陽의 奇輸를 모두 刺鍼하는 것이며, 解惑은 陰陽을 모두 調節할 줄 알아 有餘와 不足을 補瀉하여 陰陽을 정상적으로 變化시키는 것입니다.”

黃帝가 말씀하였다. “刺節에 振埃를 夫子께서 外經을 刺鍼하여 陽病을 제거한다고 하였는데 내 그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願컨대 모두 듣고자 합니다.”

岐伯이 말씀하였다. “振埃는 陽氣가 크게 逆上하여 위로 胸中에 가득해져 脹滿되거나 어깨로 숨을 쉬거나 大氣가 逆上하여 숨을 헐떡이고 앉아 있거나 엎드려 있게 되며 먼지와 연기를 싫어하여 목이 막혀 숨을 잘 쉴 수 없게 되는데, 振埃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항상 먼지를 털어내는 것보다 빠릅니다.”

黃帝가 말씀하였다. “좋습니다. 이를 取하는데에는 어떠한가요?”

岐伯이 말씀하였다. “天容에서 取합니다.”

黃帝가 말씀하였다. “기침으로 上氣가 되어 氣가 퍼지지 않고 胸痛이 있는 경우는 어디를 취해야 하나요?”

岐伯이 말씀하였다. “廉泉에서 취합니다.”

黃帝가 말씀하였다. “取함에 방법이 있습니까?”

岐伯이 말씀하였다. “天容을 취할 때는 一里를 지나지 말고, 廉泉을 취할 때는 血이 變하면 그쳐야 합니다.”

黃帝가 말씀하였다. “좋습니다. 刺節에 發矇

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으나 내 그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무릇 發膿은 귀로 소리를 잘 듣지 못하고 눈으로 물체를 잘 보지 못하는 것인데, 夫子께서는 府輸를 刺鍼하여 府病을 제거한다하니 어떤 輸穴이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願컨대 그 緣故를 듣고자 합니다.”

岐伯이 말씀하셨다. “妙합니다. 질문이시여! 이는 刺法의 大約이고, 鍼術의 極이며, 神明의 部類이니 말과 책으로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請컨대 發膿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항상 發膿보다 빠르다고 하겠습니까.”

黃帝가 말씀하셨다. “좋습니다. 願컨대 모두 듣고자 합니다.”

岐伯이 말씀하였다. “이를 刺鍼하는 道理는 期必 日中에 聽宮을 刺鍼할 것이니, 眸子에 적중하고 소리가 귀에 들리면 이 곳이 바로 그 輸穴입니다.”

黃帝가 말씀 하셨다. “좋습니다. 무엇을 귀에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까?”

岐伯이 말씀하였다. “邪氣를 刺鍼할 때에 손으로 코를 꼭 막고 재빨리 누우면(혹 숨을 참고 소리가 새나가는 것을 막으면) 그 소리가 반드시 鍼에 응합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좋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보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알아 다스린다는 것이니 神明을 터득한 것입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刺節에 去爪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夫子께서 關節과 肢絡을 刺鍼한다고 하였는데 願컨대 모두 듣고자 합니다.”

岐伯이 말씀하였다. “腰脊은 身의 大關節이요, 肢脛은 人의 管으로 趨翔하는 것이며, 莖垂는 身中の 機로서 陰精의 徵候이고 津液의 道입니다. 그러므로 飲食을 不節制하고 喜怒를 制御하지 않아 津液이 안으로 넘치면 바로 牽丸으로 下溜하여 血道가 不通하고 날로 커져 俛仰이 不便하고 趨翔이 不能해 집니다. 이 病은 水氣가 뭉쳐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으

니 鉞石으로 取해야 합니다. 浮腫의 형태를 항상 숨길 수 없고 항상 은폐시킬 수 없기 때문에 去爪라고 합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좋습니다. 刺節에 撤衣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夫子께서 諸陽의 奇輸를 모두 刺鍼해야 하는데 常處는 없다 하셨으니 願컨대 모두 듣고자 합니다.”

岐伯이 말씀하였다. “이는 陽氣가 有餘하고 陰氣가 不足한 것입니다. 陰氣가 不足하면 內熱하고 陽氣가 有餘하면 外熱하니, 內熱이 相搏하면 석탄을 품에 안고 있는 것보다 뜨거워 밖으로 숨웃이나 비단웃을 입지 않으려 하고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며 따뜻한 자리에 앉지 않으려 합니다. 腠理가 閉塞되면 땀이 나오지 않고 혀가 타고 입술이 마르며 肌肉과 목이 말라 飲食의 美惡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좋습니다. 이를 취하는 방법은 어떠합니까?”

岐伯이 말씀하였다. “或 天府, 大杼에다 세 번 자침하고, 또 中膂에 刺鍼하여 熱을 없애고 手足太陰에 刺鍼하여 땀을 내면 熱은 제거되고 땀은 가시어 徹衣보다 신속합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좋습니다. 刺節에 解惑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夫子께서 陰陽을 모두 조절할 줄 알아 有餘와 不足을 補瀉하여 변화시켜야 한다고 하셨는데, 惑이 어떻게 풀어집니까?”

岐伯이 말씀하였다. “大風이 몸에 있게 되면 血脈이 偏虛하여 虛한 사람은 不足해지고 實한 사람은 有餘해지니 輕重이 서로 걸맞지 않아 몸이 기울어지거나 돌아가며(혹 몸을 전후좌우로 운동하지 못하게 되며) 東西南北을 알지 못하게 되고 어떤 때는 올라갔다 어떤 때는 내려갔다 하여 反覆의으로 顛倒가 無常하여 迷惑보다 심하게 됩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좋습니다. 이를 취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岐伯이 말씀하였다. “그 有餘한 것을 瀉하고 그 不足한 것을 補하여 陰陽을 和平하게 회복시켜야 하니, 이와 같이 鍼을 활용하면 解惑보다 빠릅니다.

黃帝가 말씀하였다. “좋습니다. 請컨대 藏書室에 보관하여 함부로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 第二章. 五邪

### 【原文】

黃帝曰 余聞刺有五邪라하니 何謂五邪오

岐伯이 曰 病에 有持癰1)者하며 有容大(1)者하며 有狹小(2)者하며 有熱者하며 有寒者하니 是謂五邪니이다

黃帝曰 刺五邪는 奈何오

岐伯이 曰 凡刺五邪之方은 不過五章이니 痺熱2)은 消滅하고 腫聚는 散亡하고 寒痺는 益溫하고 小(3)者는 益陽하고 大(4)者는 必去하니 請道其方호리이다

凡刺癰邪엔 無迎隨3)이니 易俗移性하고 不得膿이어든 脆道4)更行하여 去其鄉5)하여 不安處所하면 乃散亡6)하니 諸陰陽過癰者는 取之其輸하여 寫之라

凡刺大邪엔 日以小7)하여 泄奪其有餘라야 乃益虛하니 剽(5)其通8)하여 鍼其邪9)호대 肌肉親視之하여 毋有反其眞10)이니 刺諸陽分肉間이라

凡刺小邪엔 日以大하야 補其不足11)이라야 乃無害하니 視其所在하야 迎之界하야 遠近盡至면 其不得外侵而行之하야 乃自費(6)하니 刺分肉間이라

凡刺熱邪엔 越而蒼12)(7)하야 出遊不歸라야 乃無病하니 爲開通辟門戶13)하야 使邪得出하면 病乃已라

凡刺寒邪엔 日以溫하야 徐往徐來14)라야 致其神하니 門戶已閉하야 氣不分하고 虛實得調하야 其氣存也니이다

黃帝曰 官鍼(8)은 奈何오

岐伯이 曰 刺癰者는 用鉞鍼하고 刺大者는 用鋒鍼하고 刺小者는 用員利鍼하고 刺熱者는 用鑱鍼하고 刺寒者는 用毫鍼也니이다

### 【校勘】

1) 持癰: 『太素』卷二十二「五邪刺」에는 '時癰'으로 되어 있다.

2) 痺熱: 『太素』卷二十二「五邪刺」, 張注本, 類經에는 '痺熱'로 되어 있다.

3) 凡刺癰邪 無迎隨: 『甲乙』卷五第二에는 '凡刺癰邪 用鉞鍼 無迎隨'으로 되어 있다.

4) 脆道: 『太素』卷二十二「五邪刺」에는 '詭道'로 되어 있다.

5) 去其鄉: 『太素』卷二十二「五邪刺」에는 '行去其鄉'으로 되어 있다.

6) 不安處所乃散亡: 『太素』卷二十二「五邪刺」에는 '不安其處所乃散亡'으로 되어 있다

7) 凡刺大邪 日以小: 『甲乙』卷五第二에는 '凡刺大邪 用鋒鍼 曰以小'로 되어 있다.

8) 剽其通: 『太素』卷二十二「五邪刺」에는 '標其道'로, 『甲乙』卷五第二에는 '標其通'으로 되어 있다.

9) 鍼其邪: 『太素』卷二十二「五邪刺」에는 '鍼其邪干'으로 되어 있다.

10) 反其眞: 『甲乙』卷五第二에는 '乃自直道'로 되어 있다.

11) 凡刺小邪 日以大 補其不足: 『甲乙』卷五第二에는 '凡刺小邪 用圓針 曰以大 補益其不足'으로, 『太素』卷二十二「五邪刺」에는 '凡刺小邪曰以大 補其不足'으로 되어 있다.

12) 凡刺熱邪 越而蒼: 『甲乙』卷五第二에는 '凡刺熱邪 用鑱鍼 越而滄'으로, 『太素』卷二十二「五邪刺」에는 '凡刺熱邪 越而滄'으로 되어 있다.

13) 爲開通辟門戶: 『甲乙』卷五第二과 『太素』卷二十二「五邪刺」에는 모두 '爲開道乎辟門戶'로 되어 있다.

14) 凡刺寒邪 日以溫 徐往徐來: 『甲乙』卷五

第二에는 ‘凡刺寒邪 用毫鍼 曰以溫 徐往疾出’로, 『太素』卷二十二「五邪刺」에는 ‘凡刺寒邪 曰以溫 徐往疾出’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容大: 邪氣가 盛大함을 말함.
- (2) 狹小: 邪氣가 輕微함을 말함.
- (3) 小: 虛邪.
- (4) 大: 實邪.
- (5) 剽: 꿇을, 劫迫할, 砭刺할 표.
- (6) 費: 닿을(耗損) 비.
- (7) 越而蒼: 越은 發越, 發散의 뜻이고 蒼은 滄과 통하는데 寒冷의 뜻이다.
- (8) 官鍼: 用鍼.

【較註】

[1]黃帝曰 余聞刺有五邪 何謂五邪 岐伯曰 病有持癰者 有容大者 有狹小者 有熱者 有寒者 是謂五邪 黃帝曰 刺五邪奈何 岐伯曰 凡刺五邪之方不過五章 癰熱消滅 腫聚散亡 寒痺益溫 小者益陽 大者必去 請道其方

楊·馬·張·景岳·黃은 “持癰은 癰膿이 蓄積된 것이고, 容大는 寬容廣大를 말하며, 狹小는 窄狹微小한 것이고, 熱은 癰熱이며, 寒은 寒痺이다. 五章은 五條이다. 癰熱消滅(熱)과 腫聚散亡(持癰)과 寒痺益溫(寒)과 小者益陽(狹小)과 大者必去(容大)가 五邪를 刺鍼하는 五章이다.”<sup>13)</sup>고 하였다.

[2]凡刺癰邪 無迎隨 易俗移性 不得膿 脆道更行 去其鄉 不安處所乃散亡 諸陰陽過癰者 取之其輸寫之

楊·校釋은 “無迎隨의 隨은 隆과 通하니 旺盛하다는 뜻이다. 無迎隨은 癰邪의 旺盛한 形勢를 마주치려 하지말고 그 銳氣를 피해야 한다는 말이다. 易俗移性은 通常의 治法을 바꾸고 마음을 느긋하게 먹어 疾病의 性質을 바꾸라는 말이다. 詭道更行은 여러 다양한 治法을 써서 다스리라는 말이다. 淮南子說林에 ‘尺寸雖齊 必有詭’라 하였는데 高注에 ‘詭는 不同이다’고 하였다.”<sup>14)</sup>고 하였고,

馬·景岳·黃은 “癰은 盛이다. 營衛生會篇에 ‘日中而陽隨’이라 하였고 生氣通天論에 ‘隆’으로 쓰여져 있는데 대개 隆과 通用된다. 無迎隨이라는 것은 癰邪의 발생이 銳利하여 銳鋒을 피해야 된다는 것이고, 易俗移性은 시간적으로 마음에 여유를 갖고 다스리라는 말이니

調也라 章은 法也라 謂陽盛於外而爲癰熱者는 使之消滅하고 氣聚而爲壅腫者는 使之散亡하고 寒者는 致其神氣以和之하고 眞氣小者는 益其陽하고 大者는 必使之歸去하니 各有平調之法也라 閔士先曰 始言刺節하고 中論眞氣하며 末言外邪라 故로 曰刺節眞邪라 所謂邪病者는 謂不得中和之道而爲病也라 若以外邪之病論之 則去經義遠矣라 ○類經: 五章은 五條也니 詳如下文이라 ●黃: 持癰은 蓄積癰膿也 容大는 寬容廣大也 狹小는 窄狹微小也 熱은 癰熱也 寒은 寒痺也라 五章은 五條也라 癰熱消滅(熱) 腫聚散亡(持癰) 寒痺益溫(寒) 小者益陽(狹小) 大者必去(容大)가 此刺五邪之五章也라

13) 楊: 五法須別爲章也라 癰은 熱病也니 音丹이라 ○馬: 此는 言刺分五邪하니 當用五章之法也라 凡刺五邪之方은 不過五章而已니 五章者는 五事也라 故로 邪有熱者는 今行刺法則癰熱消滅하고 邪有持癰者는 今行刺法則腫聚散亡하고 邪有寒者는 今行刺法則寒痺益溫하고 邪有狹小者는 今行刺法則小者益陽이라 蓋小者는 不使之大則其在外爲陽者가 無害而有陽也라 邪有容大者는 今行刺法則大者必去라 此五章者가 所以刺五邪也라 下文乃析言之라 ○張: 此節은 言眞氣通會於皮膚肌腠之間而有壅滯大小寒熱之病이라 邪者는 謂不得中正之和

14) 楊: 隨은 大盛也라 癰之大盛將有膿이면 不可迎而寫之也라 易其常行法度之俗하고 移其先有寒溫之性하며 更量膿之所在하야 上下正傍에 以得爲限이라 故로 曰去其鄉하야 不安於處一이라야 病乃散亡也라 諸陰陽之脈過癰所者는 可取癰之所由之輸寫也라 ●校釋: 無迎隨의 隨은 與隆通하니 旺盛의 意思라 無迎隨은 就是不可迎着癰邪의 旺盛之勢而應避其銳氣라 易俗移性은 這裏指改變通常治法 耐心地從緩調治하야 以改移疾病性質이라 詭道更行은 這裏指另採用不同的方法進行治療라 淮南子說林에 尺寸雖齊나 必有詭라하야늘 高注에 詭는 不同也라하니라

風俗과 사람의 성품을 바꾸려 할 때에 서둘러서는 안 되는 것과 같다. 이는 上文의 腫聚散亡을 해석한 것이다. 脆는 堅固한 癰腫을 부드럽게 녹여 없애는 것을 말한다. 癰毒이 변화되지 않으면 膿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或 內托하고 或 溫散하며 或 刺鍼하고 或 艾灸를 하여 그 毒이 변화되도록 힘써야 되니 이것이다 脆道更行이다. 鄉은 向이고, 安은 留聚이니 그 毒氣가 向하는 곳을 제거하여 자리잡지 못하게 하면 바로 消失되어 없어진다. 그러므로 모든 陰經과 陽經에 다만 壅滯가 있는 부분을 관찰하는 것은 다 그 해당 輸穴을 취하여 그 銳氣를 寫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去其鄉이다.”<sup>15)</sup>고 하였으며,

張은 “이는 氣가 皮膚와 肌腠 사이에 凝滯되어 腫聚가 된 것이다. 癰은 壅이니 이는 氣가 壅滯되어 腫氣가 된 것이지 癰膿이 아니다. 離合眞邪論에 ‘날씨가 지나치게 더워 대지를 볼 때우면 강물들도 파도가 일어 隴起하니, 이렇게 되면 經脈의 動脈들도 또한 隴起하게 된

다.’고 하였다. 이는 대개 氣가 皮膚와 分肉에 壅滯되어 腫氣가 된 것이니, 이때에는 極盛한 經脈의 邪氣를 맞이해 함부로 자침하지 말라는 말이다. 俗은 習俗과 같고, 性은 마음이 생기는 곳이니 마음에서 생기는 神氣가 이 곳에 습관적으로 쌓이면 移易시켜 옮겨 다니지 못하게 해야 한다. 癰膿이 아니기 때문에 膿瘍이 생기지 않는다. 脆道는 肌肉의 道路이니, 쌓인 氣가 脆道를 따라 옮겨 다닐 때에는 모여 있는 氣를 제거하여 그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하면 모여 있는 氣가 흩어지게 된다. 모든 陰陽의 經脈이 壅處로 지나가는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輸穴을 寫해야 하니, 대개 皮膚와 分肉의 氣가 經脈의 輸穴이나 絡脈을 따라 나와 聚氣가 脈絡으로 흘러갈까 염려되기 때문이다.”<sup>16)</sup>고 하였다.

[3]凡刺大邪日以小 泄奪其有餘 乃益虛 剽其通 鍼其邪 肌肉親視之 毋有反其眞 刺諸陽分肉間

楊·校釋은 “剽其通의 剽는 砭刺의 뜻이다. 剽其通은 砭刺를 통하여 邪氣의 阻滯를 제거하여 正氣가 運行되는 道路를 開通시킨다는 뜻이다. 肌肉親은 邪氣가 제거된 후 肌肉 사이에 邪氣가 停滯되는 현상이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모든 陽分의 分肉 사이를 刺鍼하라고 한 것은 實大한 邪氣는 대부분 三陽으로 침범하

15) 馬: 此는 承上文而言腫取散亡之法也라 凡刺癰邪에 無迎其氣來隆이니 所謂避其來銳者是也라 如易風俗如移性情相似니 須緩以待之하야 若不得膿則揉以脆之하고 導以行之하야 去其癰腫之鄉하야 彼當不安處所라야 乃自散亡矣라 凡諸陰陽之有病生癰者는 取氣本經之輸穴以寫之니 如手太陰輸穴太淵之類와 手陽明輸穴三間之類라 ●景岳: 癰은 盛也라 營衛生會篇에 曰 日中而陽隴이라하고 生氣通天論에 作隆하니 蓋癰은 隆으로 通用也라 無迎隴者는 癰邪之來銳하야 所當避也요 易俗移性은 謂宜從緩調和니 如移易俗性에 不宜欲速이라 此는 釋上文腫聚散亡也라 脆는 柔脆潰堅之謂라 凡癰毒不化면 則不得膿이라 故로 或托其內하고 或溫其外하며 或刺以鍼하고 或灸以艾하야 務化其毒이니 皆脆道更行也라 鄉은 向也요 安은 留聚也니 去其毒氣所向하야 不使安留處所면 乃自消散矣라 故로 於諸陰經陽經에 但察其過於壅滯者는 皆當取輸穴하야 以寫其銳氣니 是即所謂去其鄉也라 ○黃: 凡刺癰邪엔 無迎其隴盛之勢(隴은 與隆同이라)라 若易俗移性하야 違其自然之宜면 必不得膿이니 宜脆道更行하야 使腫聚去其鄉而 不安處所라야 乃能散亡이라 諸陰陽經絡之有過而成癰者는 取之其輸而寫之라 此持癰之方也라

16) 張: 此는 氣滯於皮膚肌腠之間而爲腫聚也라 癰者는 壅也니 此는 因氣壅而腫이요 非癰膿也라 離合眞邪論曰 天暑地熱則經水波涌而隴起하니 經之動脈其至也도 亦時隴起라하니 蓋言此氣壅於皮膚分肉而爲腫이니 無迎刺隴起之經脈也라 俗猶習俗이요 性者는 心之所生也니 謂心所生之神氣習聚於此하면 當移易不流行이라 非癰膿故로 不得膿이라 脆道는 肌肉之理路也니 聚氣從脆道更行에 去其所聚鄉하야 不使安其處則聚氣乃行散矣라 諸陰陽之脈이 所過於壅處者를 取其輸而寫之니 蓋皮膚分肉之氣가 從經輸絡脈而出하야 恐聚氣之流於脈絡也라 言此合併充身之眞氣도 亦運行環轉之無端也라

기 때문에 三陽經의 分肉사이를 刺鍼하는 것이다.”<sup>17)</sup>고 하였고,

馬·景岳·黃은 “大邪는 實邪이다. 邪氣가 盛大하면 갑자기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날마다 조금씩 제거해야 차도를 보일 것이고, 有餘한 邪氣를 제거해야 實한 邪氣가 虛해 진다. 이는 윗 글의 ‘大者必去’를 해석한 것이다. 剽는 砭刺이고, 通은 病氣가 지나가는 길이다. 鍼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니 邪氣에 적중 되도록 힘써야 된다. 邪正의 脈色을 세밀하게 관찰해야 하니 적은 것을 큰 것으로 오인하면 眞實을 왜곡시키게 된다. 盛大한 實邪는 대부분 三陽經으로 침범하기 때문에 모든 陽分의 分肉사이를 刺鍼한다.”<sup>18)</sup>고 하였으며,

張은 “大는 眞氣가 肌腠사이에 많이 몰려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조금씩 작아지게 해야 한다. 體表에 氣가 有餘하면 體內에서는

不足해 지는 법이니, 만약 그 有餘한 氣운을 泄奪시키면 體內의 氣운을 더욱 虛하게 만든다. 대개 ‘日以小’라는 것은 體內로 되돌아가게 하라는 뜻이지 밖으로 泄泄시키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眞氣가 會通하는 處所를 빌려 有餘한 氣운을 刺鍼하여 體內와 통하게 해야 한다. 親은 近의 뜻이다. 肌肉을 가까이 살펴 肌肉이 緻密하고 작으면 內外가 和平한 것이다. 萬若 眞氣를 안으로 되돌리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시 陽分의 分肉사이를 刺鍼한다.”<sup>19)</sup>고 하였다.

[4]凡刺小邪 日以大 補其不足 乃無害 視其所在迎之界 遠近盡至 其不得外侵而行之乃自費刺分肉間

楊은 “小邪는 虛邪이니 補를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大補를 해서 實하게 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界는 畔際이다. 虛實의 畔界를 살피고 眞氣의 遠近을 헤아려 虛한 가운데에서 實하게 하여야 邪氣가 들어 올 수 없다. 侵은 지나친 것이다. 補해서 實해 졌으면 바로 그칠 줄 알아야지 補도 지나치면 오히려 正氣를 손상시킨다. 費는 損이다. 分肉間을 刺鍼하는 것은 小邪의 所在를 刺鍼하는 것이다.”<sup>20)</sup>고 하였고,

馬는 “이는 위의 글에 이어 ‘小者益虛之法’을 상세히 말한 것이다. 小邪를 刺鍼하는 것은

17) 楊: 大邪者는 實邪也니 行寫爲易이라 故로 小洩之하여 益虛取和也라 於鍼之道에 戰慄謹肅하여 以鍼干邪라야 使邪氣得去하야 肌肉相附라 親은 附也라 視邪氣無有하야 反其眞氣乃止也라 (刺諸陽分肉間은) 刺大邪所在也라 ●校釋: 剽其通의 剽는 砭刺의 意思라 剽其通은 就是通過砭刺以去其邪氣之阻滯하야 使正氣運行的道路開通이라 肌肉親은 指邪氣使被祛除後에 肌肉之間에 無邪氣干撓阻滯의 意思라 刺諸陽分肉間은 實大之邪多在三陽이라 故로 宜刺三陽經之分肉間이라

18) 馬: 此는 承上文而詳言大者必去之法也라 凡刺邪之大者는 日漸使之小焉이 可也라 彼大者는 成於有餘하니 當泄奪之則邪益虛하야 遂乃剽竊其通流之所하야 鍼其大邪之移라 又即其分部肌肉以親視之하야 毋使之反其眞氣可也라 其所取之穴은 當刺諸陽經之分肉間耳라 ●景岳: 大邪는 實邪也라 邪氣盛大하면 難以頓除니 日促小之라야 自可漸去요 去其有餘라야 實者虛矣라 此는 釋上文大者必去也라 剽는 砭刺也요 通은 病氣所由之道也라 鍼無妄用이니 務中其邪라 言邪正脈色을 必當親切審視니 若以小作大면 則反其眞矣라 盛大實邪는 多在三陽이라 故로 宜刺諸陽分肉間이라 ○黃: 凡刺大邪엔 日以漸小하야 瀉奪其有餘라야 乃始益虛하니 剽其通達之路(剽即刺也)하야 以鍼其邪호대 肌肉親視之하야 毋有反其眞이니 刺諸陽分肉間이라 此刺容大之方也라

19) 張: 大者는 謂眞氣容大於肌腠之間이라 故로 當使之日小라 夫有餘於外則不足於內하니 若泄奪其有餘하면 乃益虛其內矣라 蓋日以小者는 使之復反於內요 非奪其外泄也라 故로 剽切其眞氣會之處하야 鍼其有餘之氣하야 以通於內라 親은 近也라 近視其肌肉에 緻密而小則內外和平矣라 若毋有反其眞者는 再刺諸陽分肉間이라 蓋眞氣者는 神氣也니 從關節而出於肌腠之外라 故로 剽通其關節하야 其有未反者再取之肌肉也라

20) 楊: 小邪는 虛邪也니 行補爲難也라 故로 曰大補하야 使其實이라 界는 畔際也라 視虛實畔界하야 量眞氣遠近하야 須引至虛中令實하야 不得外而不至也라 侵은 過也라 補須實이면 知即止어늘 補過即損正氣라 費는 損也라 (刺分肉間은) 刺小邪所在也라

小邪라도 날로 커질까 염려해서 이다. 그러므로 不足을 補해 주면 眞氣가 회복되어 害가 없을 것이고, 또 分部의 所在를 보아 小邪가 있는 지역을 瀉해야 하니, 이것은 바로 먼저 不足한 經脈을 補해준 연후에 有餘한 經脈을 瀉하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遠近의 眞氣가 모두 이르고 邪氣가 外侵하지 못하게 된다. 이른바 ‘小者益陽’의 뜻은 이와 같다. 刺法은 邪氣가 있는 分肉사이에서 取해야 한다.”<sup>21)</sup>고 하였으며,

張은 “小라는 것은 肌膜로 通하는 氣가 虛小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精氣가 날로 增大되도록 補해 주어야 害가 없으니, 氣가 이르는 곳을 보아 境界에서 맞이해야 한다. 界는 關節의 交叉點이다. 上焦의 神氣와 中焦의 穀氣 그리고 下焦의 天真 등 遠近의 氣를 모두 이르게 하면 날로 氣가 증대된다. 侵은 漸進이다. 費는 用이다. ‘其不得外侵而行之’라는 것은 中焦의 穀氣만이 自用하여 下焦의 天真之氣와 함께 몸을 충실히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分肉間을 刺鍼하여 그 穀氣를 通하게 해주는 것이다.”<sup>22)</sup>고 하였고,

景岳은 “小邪는 虛邪이다. 虛邪를 補하면 正氣는 날로 증대되고 邪氣는 물러난다. 不足한 것을 補하면 害가 없게 될 것이고, 그 虛를

瀉하면 病을 免치 못하게 된다. 이는 上文의 ‘小者益陽’을 해석한 것이다. ‘迎之界’는 그 氣가 運行되는 곳을 맞이하는 것이다. 먼저 不足한 經을 補하고 나중에 有餘한 經을 瀉하여 邪氣는 제거되고 正氣는 회복되면 遠近의 眞氣가 모두 이르러 邪氣가 外侵하지 못하게 되니 설혹 침범하더라도 흠어져 머물지 못하게 된다. 小邪는 그 邪氣가 있는 곳에 따라 刺鍼하기 때문에 다만 分肉사이를 取한다.”<sup>23)</sup>고 하였으며,

黃은 “小邪를 刺鍼할 때에는 正氣를 날로 증대시켜야 害가 없다. 邪氣가 있는 所在를 보아 그 境界에서 맞이해 刺鍼하면 遠近의 氣가 모두 이르러 邪氣가 外侵하지 못하게 되어 正氣가 날로 증대된다. (侵은 浸으로 쓰여져야 하니 漸의 뜻이다. 費는 大이다) 이 때는 分肉사이를 刺鍼해야 되는데, 이것이 狹小를 刺鍼하는 방법이다.”<sup>24)</sup>고 하였다.

[5]凡刺熱邪 越而蒼 出遊不歸 乃無病 爲開通辟門戶 使邪得出 病乃已

楊·黃·校釋은 “越而蒼의 越은 發越의 뜻이고 蒼은 寒涼의 뜻이니, 越而蒼은 熱邪를 鍼刺하여 邪氣를 外部로 發越시켜 身體에서 나는 熱을 제거한다는 의미이다. 出遊不歸는 病邪가 排出된 後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고, 또한 熱이 물러간 다음 다시 재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sup>25)</sup>고 하였고,

21) 馬: 此는 承上文而詳言小者益陽之法也라 凡刺邪之小者는 慮其日以益大라 故로 必補其不足則 眞氣當復而無害요 又視其分部所在하여 以迎其氣來之界而奪之니 此乃先補不足之經而後에 瀉其有餘之經이라 是로 遠近之眞氣盡至하고 其邪不得外侵而行之하야 乃自廢而無留也라 所謂小者益陽之義如此라 然刺之之法은 當取其有邪之分肉間耳라

22) 張: 小者는 通會於肌膜之氣虛小라 故로 當使日以漸大則追而補之하야 乃無害니 視其氣至之所在而迎之於界라 界者는 節之交也라 使上焦之神氣 中焦之穀氣 下焦之天真遠近盡至則日以大矣라 侵은 漸進也라 費는 用也라 其不得外侵而行之者는 乃中焦之穀氣自用하야 不與下焦之天真으로 合并而充身이라 故로 當刺分肉間以通其穀氣라

23) 景岳: 小邪는 虛邪也라 虛邪補之면 則正氣日大而邪自退也라 不足而補면 乃可無害요 若寫其虛면 斯不免矣라 此는 釋上文小者益陽也라 迎之界者는 迎其氣行之所也라 先補不足之經하고 後寫有餘之經하야 邪去正復則遠近之眞氣盡至하야 邪氣不得外侵則必費散無留矣라 小邪는 隨在可刺라 故로 但取分肉間也라

24) 黃: 凡刺小邪엔 日以漸大하야 乃可無害라 視其所在而迎之於界하면 遠近之氣盡至하야 其不得外侵而行之하야 乃自費라(侵은 當作浸이니 漸也라 費는 大也라) 宜刺分肉之間이니 此刺狹小之方也라

景岳은 “越은 發揚이고, 蒼은 卒疾이다. 出遊는 行散이고 歸는 還이다. 熱邪를 刺鍼하는 경우에는 速히 發散시키는 것이 귀하니, 熱邪가 홀어져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病이 없게 된다. 이는 上文의 ‘痺熱消滅’을 풀이한 것이다. 壅滯를 開通시켜 그 門戶를 여는 것은 熱邪는 의당 寫해야 되기 때문이다.”<sup>26)</sup>고 하였으며,

馬는 “이는 위의 글에 이어 ‘痺熱消滅’의 法을 상세히 말한 것이다. 熱邪를 刺鍼하는 경우에 그 熱이 盛하면 精神이 外越하여 意氣가 蒼茫하니, 만약 밖으로 떠돌아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고치고자 한다면 門戶를 열어 熱邪를 밖으로 배출해야 한다. 이것이 이른바 有餘한 邪氣를 瀉하면 病은 저절로 낫는다는 것이다.”<sup>27)</sup>고 하였으며,

張은 “熱邪는 陽氣가 盛해서 肌腠의 사이에 留滯되어 있기 때문에 熱이 나는 것이다. 蒼은 하늘의 正色이다. ‘越而蒼’이라는 것은 邪熱을 發越시키면 天真의 氣色이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出遊不歸는 神氣가 밖으로 遊行하여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니, 이 때에는 門戶를 열어 邪氣를 나가게 한 다음에야 病이 나

을 수 있다.”<sup>28)</sup>고 하였다.

[6]凡刺寒邪 日以溫 徐往徐來 致其神 門戶已閉 氣不分 虛實得調 其氣存也

楊은 “寒邪를 刺鍼하는 道理는 날마다 조금씩 따뜻해지게 해야 하니, 鍼을 서서히 놓아 溫氣가 생긴 다음에는 재빨리 出鍼해야 하는데 이는 神氣가 이르도록 하자는 뜻이다.”<sup>29)</sup>고 하였으며,

景岳·馬·張은 “溫이라는 것은 正氣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 徐往徐來라는 것은 和緩하게 하라는 말이고, 致其神이라는 것은 陽氣를 이르게 하면 寒邪는 저절로 없어진다는 말이다. 이는 上文의 ‘寒痺益溫’을 해석한 것이다. 氣虛를 補하면 門戶가 닫혀 氣가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虛實을 조절할 수 있고, 眞氣를 보존할 수 있으니 이것이 寒邪를 溫補해야 하는 까닭이다.”<sup>30)</sup>고 하였다.

[7]黃帝曰 官鍼奈何 岐伯曰 刺癰者用鈹鍼

- 25) 楊: 刺熱之道는 寫越走氣하면 □覺滄然하야 熱氣不歸하니 病則愈也라 辟은 開也라 ○黃: 凡刺熱邪엔 越而蒼(越은 溥越也요 蒼은 當作滄이니 熱氣溥越則變爲滄涼이라)하야 出遊不歸라야 乃無病(熱氣遊散이라)이니 爲開通辟門戶하야 使邪得出하면 病乃已하니 此刺熱邪之方也라 ●校釋: 越而蒼의 越은 作發越解요 蒼은 作寒涼解니 越而蒼은 就是鍼刺熱邪하야 把邪氣發越于外하야 使身體由熱轉涼의 意思라 出遊不歸는 形容病邪被排出後에 不再歸回作祟요 也就是熱退之後에 不再發熱의 意思라
- 26) 景岳: 越은 發揚也요 蒼은 卒疾也라 出遊는 行散也요 歸는 還也라 凡刺熱邪者는 貴於速散이니 散而不復하면 乃無病矣라 此는 釋上文痺熱消滅也라 開通壅滯하야 辟其門戶는 以熱邪之宜寫也라
- 27) 馬: 此는 承上文而詳言痺熱消滅之法也라 凡刺熱邪에 其熱盛則神思外越而意氣蒼茫하니 若出遊不歸나 乃欲無病이든 當開關之하야 以通其門戶하야 使熱邪得出이라 所謂瀉其有餘也則病乃自己矣라

- 28) 張: 熱邪者는 陽氣盛而留於肌腠之間이라 故로 爲熱也라 蒼者는 天之正色也라 越而蒼者는 使邪熱發越而天真之氣色見矣라 出遊不歸는 神氣遊行於外而不返其眞이니 此爲開關門戶하야 使邪得出而後에 病乃已라 故로 雖出遊不歸나 乃無病이라 此蓋言眞氣外內出入環轉無息者也라
- 29) 楊: 刺寒之道는 日日使溫이니 徐往而入하야 得溫氣已에 去疾而出鍼이니 以致神氣爲意也라
- 30) ●景岳: 溫者는 溫其正氣也라 徐往徐來는 欲和緩也요 致其神者는 致其陽氣則寒邪自除라 此는 釋上文寒痺益溫也라 補氣虛면 則門戶閉而氣不泄이라 故로 虛實可調요 眞氣可存이니 此는 寒邪之宜溫也라 ○馬: 此는 承上文而詳言寒痺益溫之法也라 凡刺寒邪는 一日之內即當除之라 用鍼之間에 徐往徐來하야 以致其神氣하야 使門戶已閉하야 分氣不泄則虛實得調하야 其眞氣自存而寒者溫矣라 ○張: 寒氣者는 所得於天之水寒이요 神者는 火之精也라 水火相感하야 神志合精하면 是爲和平이라 故로 刺寒邪者는 日以除其寒호대 徐往徐來하야 以致其神氣即閉其門戶하야 使氣不分而寒熱之虛實得調하야 其眞氣乃存矣라 上節은 論開關門戶以去邪요 此는 論門戶已閉乃存正이라

刺大者用鋒鍼 刺小者用員利鍼 刺熱者用鑱鍼  
刺寒者用毫鍼也

楊·景岳·馬·張은 “五邪를 刺鍼하는 데에는 九鍼 가운데 이 五鍼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sup>31)</sup>고 하였다.

### 【考 察】

1. ‘脆道’가 『太素』 卷二十二 「五邪刺」 에는 ‘脆道’로 되어 있는데, 脆道는 여러 가지 부동한 방법 즉 다양한 치료방법을 말한다. 대부분의 註家들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여 癰膿이 심할 경우에는 함부로 마주치지 말고 부드러운 방법 즉 시간적으로 여유를 갖고 치료하는 것으로 理解하고 있는데 반해, 惟獨 張만은 分肉 사이로 氣가 흘러 다니는 通路로 해석하고 있다. 모두 나름의 뜻은 가지고 있으나 文脈의 흐름으로 보아 太素의 記載가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2. ‘不安處所乃散亡’이 『太素』 卷二十二 「五邪刺」 에는 ‘不安其處所乃散亡’으로 되어 있는데, 문맥으로 보아 ‘所’는 ‘邪’의 誤字로 보인다. 왜냐 하면 ‘不安其處 邪乃散亡’으로 되어야 뜻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3. ‘凡刺熱邪 越而蒼’중 ‘蒼’이 『甲乙』 卷五 第二과 『太素』 卷二十二 「五邪刺」 에는 모두 ‘滄’으로 되어 있는데, 문맥상 이것이 맞다. 滄은 寒冷의 뜻이다. 馬는 蒼茫, 張은 天之正色, 景岳은 卒疾로 해석하여 앞뒤 문장을 겨우 겨우 연결하고 있는데, 이는 『甲乙』 과 『太素』 의 記載처럼 滄의 假借字로 보면 앞뒤 文章의 意味가 확연히 드러나므로 『甲乙』 과 『太素』 의 記載가 정확하다고 보인다.

31) ●楊: 刺五邪者는 九鍼之中에 用此五鍼이 是所宜也라 ○景岳: 五邪之刺에 官鍼이 各有所宜하니 不可不辨이라 ○馬: 此는 承上文而言 刺五邪之鍼에 各有所宜用也라 ○張: 此는 申明五者之病이 皆在皮膚肌肉之氣分이라 故로 所用之鍼도 皆取痺於肌肉者也라

### 【直 譯】

黃帝가 말씀하셨다. “내 들으니 刺法에 五邪가 있다고 하니 무엇을 五邪라 합니까?”

岐伯이 말씀하였다. “病에 持癰, 容大, 狹小, 熱, 寒이 있으니 이를 五邪라 합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五邪를 刺鍼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岐伯이 말씀하였다. “무릇 五邪를 刺鍼하는 방법은 五章에 지나지 않으니, 痺熱은 消滅하고 腫聚는 散亡하고 寒痺는 益溫하고 小者는 益陽하고 大者는 반드시 除去해야 하니 請컨대 그 道理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릇 癰邪를 刺鍼할 때에는 隴을 맞이하지 말아야 하니, 膿속과 性品을 바꾸듯 해야 하고, 膿을 형성하지 않았으면 脆道를 교대로 시행하여 그 方向을 제거하여 편히 머물지 못하게 하면 마침내 散亡하니 모든 陰陽의 經으로 지나가는 癰은 그 輸穴을 取해서 寫합니다.

무릇 大邪를 刺鍼할 때에는 날마다 작아지게 하여 그 有餘한 것을 泄奪시켜야 비로소 더욱 虛해지니 그 通路를 劫迫하여 그 邪氣에 鍼을 놓되 肌肉을 親히 보아 그 眞氣에 違反됨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모든 陽分의 肌肉사이를 刺鍼합니다.

무릇 小邪를 刺鍼할 때에는 날마다 크게 하여 그 不足을 補해야만 비로소 害가 없으니, 그 所在를 보아 境界를 맞이하여 遠近이 모두 이르면 그 것이 外侵하여 橫行할 수 없어 마침내 스스로 消耗되는데, 分肉사이를 刺鍼합니다.

무릇 熱邪를 刺鍼할 때에는 發越시켜 寒涼하게 하는데, 한번 나간 邪氣는 돌아오지 않아야 비로소 無病하게 되니 門戶를 열어 邪氣를 나가게 하면 病이 낫습니다.

무릇 寒邪를 刺鍼할 때에는 날마다 따뜻하게 하여 서서히 침을 놓아야 神氣가 이르게 되니, 門戶가 이미 閉塞되어 氣가 分離되지 않고 虛實이 조절되어 그 氣가 保存됩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官鍼은 어떻게 됩니까?”

岐伯이 말씀하였다. “癰에는 鈹鍼, 大에는 鋒鍼, 小에는 員利鍼, 熱에는 鑱鍼, 寒에는 毫鍼을 씁니다.”

### 第三章. 解結推引

#### 【原文】

請言解論컨대 與天地相應하고 與四時相副하니 人參天地故로 可爲解라 有漸洳(1)하면 上生葦蒲하니 此所以知形氣之多少也라 陰陽者是寒暑也니 熱則滋雨而在上하야 根莖(2)少汁하니 人氣在外하야 皮膚緩하고 腠理開하야 血氣減(1)하고 汁大泄(2)하야 皮(3)淖澤하고 寒則地凍水冰하니 人氣在中하야 皮膚緻하고 腠理閉하야 汗不出하고 血氣強하야 肉堅濇이라 當是之時엔 善行水者(3)라도 不能往冰하고 善穿地者라도 不能鑿凍하니 善用鍼者也 亦不能取四厥하고 血脈凝結하야 堅搏不往來者也 亦未可卽柔(4)라 故로 行水者是 必待天溫하야 冰釋凍解라야 而水可行이요 地可穿也(4)니 人脈도 猶是也라 治厥者是 必先熨(5)하야 調和其經호대 掌與腋과 肘與脚과 項與脊을 以調之(6)라야 火氣(7)已通하야 血脈乃行이라 然後에 視其病脈하야 淖澤者是 刺而平之하고 堅緊者是 破而散之호대 氣下乃止니 此所謂以解結者也라

用鍼之類(5)는 在於調氣하니 氣積於胃하야 以通營衛하야 各行其道하고 宗氣는 留於海(8)로 되 其下者는 注於氣街하고 其上者는 走於息道(9)라 故로 厥在於足하면 宗氣不下하야 脈中之血이 凝而留止(10)하니 弗之火調면 弗能取之(11)라 用鍼者는 必先察其經絡之實虛니 切而循之하고 按而彈之하야 視其應動者(12)하고 乃後에 取之而下之(13)라 六經調者를 謂之不病이니 雖病이나 謂之自己也(14)요 一經이 上實下虛而不通者는 此必有橫絡이 盛加於大經하야 令之不通하니 視而寫之(15)를 此所謂解結也라

上寒下熱하면 先刺其項太陽하야 久留之하고 已刺則熨項與肩胛(16)하야 令熱下合(17)이라야 乃止니 此所謂推而上之者也요 上熱下寒하면 視其虛脈而陷之(18)於經絡者하야 取之호대 氣下乃止니 此所謂引而下之者也라

大熱徧身하야 狂而妄見妄聞妄言하면 視足陽明及大絡하야 取之호대 虛者는 補之하고 血而實者는 寫之라 因其偃臥(19)에 居其頭前하고 以兩手四指로 挾按頸動脈(20)하야 久持之하고 卷而切推하야 下至缺盆中하고 而復止如前(21)하야 熱去乃止니 此所謂推而散之者也니이다

#### 【校勘】

1) 血氣減: 『甲乙』 卷七第三에는 ‘血氣盛’으로, 『太素』 卷二十二 「五邪刺」에는 ‘血氣泄’로 되어 있다.

2) 汁大泄: 『甲乙』 卷七第三과 『太素』 卷二十二 「五邪刺」, 藏本, 統本에는 ‘汗大泄’로 되어 있다.

3) 皮: 『太素』 卷二十二 「五邪刺」에는 ‘肉’으로 되어 있다.

4) 行水者 必待天溫冰釋凍解而水可行地可穿也: 『甲乙』 卷七第三에는 ‘行水者 必待天溫冰釋 穿地者 必待凍解而後水可行 地可穿也’로 되어 있다.

5) 必先熨: 『甲乙』 卷七第三에는 ‘必先熨火以’로 되어 있다.

6) 以調之: 『甲乙』 卷七第三에는 ‘以調其氣’로 되어 있다.

7) 火氣: 『甲乙』 卷七第三에는 ‘大道’로 되어 있다.

8) 留於海: 『甲乙』 卷七第三에는 ‘留積在海’로, 馬注本에는 ‘流於海’로 되어 있다.

9) 其上者走於息道: 『甲乙』 卷七第三에는 ‘上行者注息道’로 되어 있다.

10) 凝而留止: 『太素』 卷二十二 「五邪刺」에는 ‘涖而止’로 되어 있다.

11) 弗之火調 弗能取之: 『甲乙』 卷七第三에

는 '弗之火調 鍼弗能取'로 되어 있다.

12) 視其應動者: 『太素』卷二十二「五邪刺」에는 '視其變動者'로 되어 있다.

13) 取之而下之: 『甲乙』卷七第三과 『太素』卷二十二「五邪刺」에는 '取而下之'로 되어 있다.

14) 謂之自己也: 日刻本, 『類經』에는 '謂自己也'로 되어 있다.

15) 視而寫之: 『甲乙』卷七第三에는 '視而寫之 通而決之'로 되어 있다.

16) 已刺則熨項與肩胛: 『太素』卷二十二「五邪刺」에는 '已刺則熨項與肩胛'으로, 『甲乙』卷七第三에는 '已刺則火熨項與肩胛'으로 되어 있다.

17) 令熱下冷: 『千金』卷十四第五에는 '令熱下冷'으로 되어 있다.

18) 陷之: 『甲乙』卷七第三, 『太素』卷二十二「五邪刺」, 『千金』卷十四第五에는 '陷下'로 되어 있다.

19) 因其偃臥: 『甲乙』卷七第三, 『太素』卷二十二「五邪刺」에는 '因令偃臥'로 되어 있다.

20) 以兩手四指 挾按頸動脈: 『甲乙』卷七第三에는 '以兩手四指 按其頸動脈'으로 되어 있다.

21) 而復止如前: 『太素』卷二十二「五邪刺」에는 '而復上如前'으로 되어 있다.

#### 【字句解】

(1) 漸洳: 漸은 濕, 洳는 濕地를 말하니 漸洳는 低濕한 지방을 말한다.

(2) 根莖: 草木의 뿌리.

(3) 行水者: 배를 모는 사람.

(4) 柔: 柔軟 혹은 柔는 揉와 통하므로 按摩를 뜻하기도 함.

(5) 類: 法則.

(6) 卷而切推: 손가락을 구부려 깊이 누름.

#### 【較註】

[1] 請言解論 與天地相應 與四時相副 人參天地 故可爲解 下有漸洳 上生葦蒲 此所以知形氣之多少也 陰陽者寒暑也 熱則滋雨而在上 根

莖少汁 人氣在外 皮膚緩 腠理開 血氣減 汗大泄 皮淖澤 寒則地凍水冰 人氣在中 皮膚緻 腠理閉 汗不出 血氣強 肉堅濇 當是之時 善行水者 不能往冰 善穿地者 不能鑿凍 善用鍼者 亦不能取四厥 血脈凝結 堅搏不往來者 亦未可即柔 故行水者 必待天溫 冰釋凍解而水可行地可穿也 人脈猶是也 治厥者必先熨調和其經 掌與腋肘與脚項與脊以調之 火氣已通 血脈乃行 然後視其病脈 淖澤者刺而平之 堅緊者破而散之 氣下乃止 此所謂以解結者也

楊·馬·張·景岳·黃은 "解論은 解結에 대한 論說이다. 사람은 天地와 더불어 서로 參與하고 反應하니, 반드시 그 道理를 알아야 解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漸洳는 伏泉이다. 아래에 샘이 있어 물기가 충분하면 땅위에서는 갈대와 부들이 생겨나니 內外와 表裏가 反應하는 이치는 다 그러한 것이다. 사람의 表裏로 盛衰를 살필 수 있는 것도 또한 이러한 이치와 같다. 여름에 더위되면 地氣가 熏蒸되어 雲雨가 피어올라 氣가 上部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草木의 기운도 또한 枝葉으로 많이 물리고 뿌리에는 水分이 부족하게 된다. 사람의 기운에 있어서도 더우면 陽이 떠올라 表에 있기 때문에 血氣가 減少되고 땀이 줄줄 나오게 된다. 그러나 더우면 氣의 운행이 잘 되기 때문에 鍼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추위되면 地氣는 얼어붙고 사람의 기운도 結聚되어 經脈의 운행이 어려워지므로 鍼을 잘 놓는 사람도 또한 四肢厥逆을 치료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날씨가 풀려 얼음이 녹고 陽氣가 잘 運行되기를 기다려 사람의 기운이 잘 流通되면 그 때에 鍼을 놓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厥逆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다만 날씨가 풀리지 않았으나 鍼을 꼭 놓아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火氣를 빌려 鍼을 놓고자 하는 經脈을 따뜻하게 찜질한 다음에 鍼을 놓는데, 무릎, 掌, 腋, 肘, 脚, 項, 脊의 사이는 다 大關節로서 血氣가 流通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찜질

하거나 따뜻하게 해주면 火氣가 通하여 血脈이 잘 運行된다. 그런 다음에 病脈을 살펴 脈氣가 滑潤한 사람은 衛氣가 體表로 떠올라 있는 것이기 때문에 鍼刺하여 平復시키고, 脈氣가 堅緊한 사람은 邪氣가 實한 경우이기 때문에 破堅, 散越의 鍼法을 써야 한다. 이렇게 하여 厥逆은 제거되고 들떠 올랐던 宗氣가 내려가야 鍼 놓기를 마칠 수 있다. 結이라는 것은 邪氣가 모인 것이니 刺鍼으로 그 邪氣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解結이다.”<sup>32)</sup>고 하였다.

32) 楊: 漸沍는 潤濕之氣也라 見葦蒲之茂悴하여 知漸沍之多少하고 觀人形之強弱하여 識血氣之盛衰라 春夏는 陽而暑也니 草木陽氣가 滋其枝葉하고 根莖少汁이라 莖也니 有本莖爲葉者는 非也라 人亦如之하니 氣溢於外하여 皮膚開濇하고 大汗洩出하여 血氣內竭이라 秋冬은 陰而寒也니 陽氣下降하여 寒氣在地하여 地凍水冰이라 人氣亦然하니 暖氣入臟하여 陰氣在於皮膚라 故로 腠理閉密 血□□肉堅濇也라 水之性流라 故로 謂之往이니 言水可往而冰不可流라 人之在冬□冷脈□肉□故로 不行鍼也라 □之擊者發寒之□□而鍼傷肌破肉 更增他病하니 可不哀歎아 四厥四支□冬也 若行水穿地者는 必待春夏也요 冬月用鍼者는 須薑椒桂酒之巾하여 熨令經脈焯澤調適然後에 可行鍼이라 凡兩掌兩腋兩肘兩腳膕膝과 項之與脊은 □之□□經脈所行要處니 熨通脈道也라 病之堅緊이면 因適破散□□□因□□經이라 ○馬: 此는 詳言鍼論之義而有解結之法也라 伯言請以言解鍼論之義에 必卽天地四時爲應爲副而以人身參之라야 始可爲解라 是故로 地下有漸沍則上生葦蒲하니 人稟天地之氣有厚薄하여 斯有形之氣多少也라 天地之陰陽者는 卽寒暑也니 暑熱則地氣上蒸而滋雨하여 氣在於上하니 所以物之氣도 亦不在下而在上하여 其根莖當少汁이라 至以人身論之면 其氣當在表하여 以皮膚則濇하고 以腠理則開하고 以血氣則減하고 以汗則大泄하여 而皮上焯澤하니 此人得天地之暑熱이라 故로 氣之在外者如此라 若天地氣寒則地凍水冰하여 氣尙在裏하니 以皮膚則緻密하고 以腠理則閉하고 以汗則不出하고 以血氣則強硬하고 以肉堅則堅濇이라 當是之時엔 其水成冰하니 雖善行水者라도 不能使水之往流하고 其地正凍하니 雖善穿地者라도 不能鑿凍하며 人氣在中하니 雖善用鍼者라도 不能取四肢厥逆之脈하고 血脈凝堅結聚하여 不能往來者도 未可使之卽能和

柔라 故로 行水者는 必待天溫하여 冰釋凍解而水可行이요 地可穿也니 人身之脈도 亦猶是也라 故로 治四肢厥逆之脈者는 必先用火以熨調之라 和其各經에 凡掌與腋과 肘與腳과 項與脊을 無不熨之하여 使火氣已通이라야 血脈乃行이라 然後에 視其病脈之焯澤者는 則刺而平復之하고 其脈堅緊者는 則破而散之하여 候其氣下乃止鍼이니 此乃鍼論解結之法也라 ○張: 此는 解論이라 所受於天之氣는 從陰而生하고 自下而上하여 應天地之寒暑往來하고 隨四時之生長收藏者也라 漸沍는 濡濕之地也라 葦蒲는 生於水中하여 其質柔弱하니 中抽莖莖을 名曰蒲根요 內剛外柔는 爲心之坎水니 以比人之元陽生於精水之中이라 故로 曰此所以知形氣之多少也라 謂充於形中之氣는 生於天一水中하니 知所乘之厚薄則知氣有多少矣라 人之陰陽出入은 應天地之寒暑往來라 熱則滋雨在上而萬物之根莖少汁하니 蓋言精水亦隨氣而上出者也라 熱則人氣在外하여 腠理開而汗大泄하고 津氣外洩이라 故로 在內之血氣減少하니 此는 言人之血氣도 本於下焦之精氣也라 地凍水冰則天氣收藏하고 而人氣在中하여 皮膚緻密而汗不出하고 精氣內藏이라 故로 血氣自強也라 善行水者라도 不能鑿冰하고 善用鍼者라도 不能取四厥하니 謂氣隨天地之寒暑出入하니 非人力之所能強也라 治厥者는 必先熨通其氣也라 調和其經은 通其經也니 謂所受於天之精氣가 行於經脈之外內者也라 謂之掌與腋과 肘與腳과 項與脊은 謂血氣之行於上下四旁하여 無處不到也라 焯澤者는 行之太過니 當刺而平之하고 緊濇者는 澁滯不通이니 當破而散之라 此所謂以鍼而解結者也라 ●景岳: 解論은 解結之論也라 人이 與天地로 相相應하니 必知其道라야 斯可與言解結矣라 漸沍는 伏泉也니 下有漸沍則上生葦蒲하여 內外之應이 理所皆然이라 人之表裏로 可察盛衰도 亦猶是也라 暑熱則地氣蒸爲滋雨而氣在上이라 故로 草木之氣도 亦在枝葉而根莖少汁也라 其於人氣에도 熱則陽浮在表라 故로 血氣減하고 汗大泄이라 然이나 熱則易行이라 故로 宜於用鍼이라 寒則地氣堅凝하여 人氣結聚而經脈難行하니 卽善用鍼者도 亦不能取四肢之厥逆이라 故로 必待天溫冰釋하여 陽氣運行而後에 人氣流通이라야 乃可用鍼矣라 此는 治厥之法이라 倘天時未溫而必欲用鍼이면 則必藉火氣하여 以熨調其經호대 凡掌腋肘項脊之間이 皆谿谷大節之交會라 故로 當熨之溫之則火氣通而血脈行이라 然後에 視其病脈하여 焯澤者는 衛氣浮也라 故로 可刺而平之요 堅緊者는 邪氣實也라 故로 當破而散之니 厥逆除而宗氣下라야 乃可止鍼矣라 結者는 邪之所聚니 刺去其邪가 卽解結之謂也라 ○黃: 解論은 解結

[2]用鍼之類在於調氣 氣積於胃以通營衛 各行其道 宗氣留於海 其下者注於氣街 其上者走於息道 故厥在於足 宗氣不下 脈中之血 凝而留止 弗之火調 弗能取之 用鍼者必先察其經絡之實虛 切而循之 按而彈之 視其應動者 乃後取之而下之 六經調者 謂之不病 雖病謂自己也 一經上實下虛而不通者 此必有橫絡盛加於大經 令之不通 視而寫之 此所謂解結也

楊·馬·張·景岳은 “무릇 鍼을 활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氣를 調節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사람은 氣를 음식에서 받기 때문에 氣는 胃중에 모여 있다. 그러나 氣의 意味에 세 가지가 있으니, 營氣와 衛氣 그리고 宗氣이다. 飮食物中 맑은 것은 營이 되니 營은 脈中에 있고, 濁한 것은 衛가 되니 衛는 脈外에 있게 되어 각각 자기 길로 운행한다. 宗氣는 大氣이니, 大氣는 上下의 氣海에 머물러 있으며 아래에 있는 宗氣는 丹田에 쌓여 있다가 足陽明의 氣街로 注入되어 다리로 下行하고, 위에 있는 宗氣는 胸中에 쌓여 있다가 息道로 나와 呼吸을 주관한다. 무릇 이 세 가지를 다 氣라고 하는데 마땅히 그 等屬을 求하여 調節해야 한다. 厥은 逆이니 陰寒의 氣運이다. 厥逆이 다리에 있게 되면 陽道가 운행되지 않기 때문에 宗氣가 下行하지 못하여 血脈이 疑滯되게 된다. 이때는 火溫法이 아니면 치료할 수 없다. 무릇 虛實을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그 微驗이 氣에 달려 있기 때문에 脈氣를 세밀히 관찰하여 그 氣의 반응이 손에 어떻게 오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 脈氣의 微甚으로 虛實을 알아낼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적합한 治法을 활용하면 邪氣는 저절로 물러가게 된다. 經脈이 調和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病症이 있더라도 미미한 것이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낮게 된다. 一經의 脈은 본래 서

로 貫流되고 있으나 橫絡이 大經에 가해지면 經脈이 不通하게 된다. 이 때에는 橫絡이 어디에 있는 지를 잘 살펴 寫하게 되면 그 經脈이 바로 조절되니, 이것 역시 이른바 解結이다.”<sup>33)</sup>고 하였다.

33) 楊: 氣之不調則病이라 故로 療病者在於調氣也 라 胃受水穀하야 以生於氣라 故로 水穀之氣積於此也라 衛氣는 起胃之□□하고 營氣는 起於胃之內口하야 營行於脈中하고 衛行脈外하니 今用鍼調於胃氣하야 通於營衛하야 使各行其道也라 穀入於胃에 其氣清者는 上注於肺하고 濁者는 下流於胃하며 胃之氣上出於口하야 以爲噫氣하고 肺之宗氣는 留積氣海하니 乃胸間動氣也라 動氣下者는 注於氣街하니 生肺脈者也요 肺之清氣積於海者는 走於息道以爲呼吸也라 厥은 厥冷이라 胸之動氣가 不循脈下行至於足이라 故로 曰痰而止라 冬日不用火調면 不可取也라 用鍼之法은 必先察經絡虛實하니 實則切循其脈하고 虛則按其所鍼之處以手彈之하야 視其變動然後에 取而下之라 三陰三陽六經相得하면 不可有病이니 雖客邪爲病이나 必當自己也라 一經은 十二經中隨是何經也라 大經隨身上下라 故로 爲從也요 絡脈傍引이라 故로 爲橫也라 正經이 上實下虛者는 必是橫絡受邪하야 盛加大經以爲病者니 必視而寫之라 故로 爲解結也라 ○馬: 此는 承上節用火熨調之義而推明之라 凡用鍼之類는 在於調病人之氣니 其氣由胃中而生이라 故로 氣積於胃也라 然由中焦之氣降於下焦而生此營氣하고 由下焦之氣升於中焦하야 以升上焦而生此衛氣라 營衛生會篇所謂營氣出於中焦 衛氣出於下焦와 又曰清者爲營濁者爲衛가 是也라 皆由胃中所積之氣가 通此營衛之氣하야 以各行其道라 營氣는 則隨宗氣以行於經陰之中하고 衛氣는 則行於各經皮膚分肉之間이라 且所謂宗氣者는 則流於體中하니 爲氣之海者是也라 其下而爲中下二焦者는 則注於氣街하니 卽足陽明胃經之氣衝穴也라 故로 在上之宗氣는 出喉嚨하야 司呼吸하야 以行息道라 凡氣自足而上厥則上之宗氣不降하고 脈中之血이 凝而留止하니 斯時也에 若弗之火以熨而調之면 烏能取四肢氣血之逆而解其結哉리오 此言用鍼者有先察後取之義도 亦承上文先熨後行之意而推廣之也라 凡用鍼者가 必先察其經絡之或虛或實이면 則實者當瀉하고 虛者當補하니 穴在何經고 切而循之하고 按而彈之하야 視其氣之來應動者하고 然後에 取其穴而下鍼이 斯可也라 此는 言六經調者爲不病而一經病者卽用解結之法也라 手足各有三陰三陽하니 謂之六經也라 六經之脈이 各調和者를 謂之不病이요 內

之論也라 下有漸加之水則上生葦蒲하니 此形氣多少도 必有外驗이 亦如是也라

[3]上寒下熱 先刺其項太陽久留之 已刺則熨  
項與肩胛 令熱下合乃止 此所謂推而上之者也

有一經之脈이 上實下虛而不通하면 此則足經之氣가 厥逆而上이라 故로 上實下虛니 其在外必有橫絡之脈하야 盛加於大經之中하야 令其不通하니 乃視之可見者也라 當視而寫之니 此亦所謂解結之法也라 ○張: 此는 言後天所生之穀氣乃營衛宗氣가 各走其道하야 充於形身之上下者也라 厥在足者는 少陰之氣厥也라 寒氣厥逆於下하니 是以로 宗氣不能下行하야 脈中之血이 凝而留止하니 弗之火調면 弗能取之는 謂下焦之精氣는 乃陰陽水火니 得火熱而後能溫其水寒이라 夫所受於天者는 少陰腎臟之精氣也라 衝脈與少陰之大絡은 起於腎하야 出於氣街하야 循陰股內廉하야 邪入膕中이라 厥在于足而宗氣不下者는 謂宗氣下行而與少陰之氣相合也라 夫所謂合并而充身者는 下焦先天之氣가 上與陽明之穀氣相合하야 而出入於關節肌腠之間이라 然而後天所生之宗氣도 亦下行而與少陰之精氣相合하야 注於氣街하야 入於膕中하야 并行於經脈皮膚之外內者也라----蓋以裏之經脈爲陰이요 外之絡脈爲陽이라 血氣之行於脈中에 從經而脈하고 脈而絡하고 絡而孫이라 故로 必先察其經絡之虛實而後取之라----六經調者는 手足之十二經別也라 大經者는 經隧也요 經隧者는 五臟六腑之大絡也라 胃腑所出之氣血이 充於皮膚分肉之間者는 從臟腑之大經而外出於皮膚橫絡者니 經脈之支別也라 如一經이 上實下虛而不通者는 此必有經脈之橫絡이 盛加於大經而令之不通也라 故로 視而寫之하니 此所謂解結也라 此二節은 論水穀所生之血氣가 榮於脈中하야 充於皮膚에 各有道路也라 ●景岳: 凡用鍼者는 必在調氣하고 人受氣於穀이라 故로 氣積於胃라 然이나 氣義有三하니 曰營氣요 曰衛氣요 曰宗氣라 清者爲營이니 營在脈中하고 濁者爲衛니 衛在脈外라 故로 各行其道也라 宗氣는 大氣也니 大氣者는 留止於上下之氣海로 되 其下者는 蓄於丹田하야 注足陽明之氣街而下行於足하고 其上者는 積於胸中하야 出於息道而爲呼吸이라 凡此三者를 皆所謂氣니 當各求其屬而調之者也라 厥者는 逆也니 陰寒之氣也라 厥逆在足則陽道不行이라 故로 宗氣不下하야 而血脈凝滯하니 不以火溫이면 不能取也라 凡察虛實엔 所驗在氣라 故로 必循之彈之하야 視其氣之應手而動者요 其微其甚이면 則虛實을 可知라 然後에 用法取之면 而氣自下矣라 經脈調者는 雖病이나 亦微故로 必自己라 一經之脈이 本相流貫이나 而橫絡이 盛加於大經이면 則經有不通者矣라 視而寫之하면 其經則調하니 亦所謂解結也라

上熱下寒 視其虛脈而陷之於經絡者取之 氣下乃止 此所謂引而下之者也

楊·馬·張·景岳·黃은 “上寒下熱은 陽이 上部에서는 虛하고 下部에서는 實한 것이다. 마땅히 먼저 項부와 足太陽經의 大杼, 天柱 等의 穴을 刺鍼하여 오래 留鍼하여 補하고 거기 에다가 어깨부위를 따뜻하게 摺질하여 氣가 이르기를 기다리는데, 上部가 따뜻해져 下部와 調和를 이루고 난 다음에야 치료를 그쳐야 한다. 이것이 이른바 아래 熱을 밀어 올려 위를 따뜻하게 한다는 것이다. 上熱下寒은 陽이 上部에서는 實하고 下部에서는 虛한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下部의 虛한 經脈을 살펴 補하는데 반드시 陽氣를 下行시킨 다음에야 치료를 마쳐야 한다. 이것이 위의 熱을 끌어내린다고 하는 것이다.”<sup>34)</sup>고 하였다.

34) 楊: 上寒은 腰以上寒이요 下熱은 腰以下熱이라 項太陽之太陽脈也라 久留鍼者는 推別熱而使之上也라 熱既聚於肩項하야 須令和之라 故로 熨使下也요 推熱上이라 故로 推而上之也라 上熱下寒은 腰以上熱이요 腰以下冷이라 視腰以下有虛脈陷於餘經及絡者하야 久留鍼하야 使氣下乃止라 故로 曰引而下之者也라 ○馬: 凡上冷下熱者는 先刺其項이니 乃足太陽膀胱經穴이라 久留其鍼하야 候其氣至而熱하고 且方已鍼之時에 必熨項與肩胛中하야 令其熱與下合이라야 乃止鍼이라 此其熱在於下者를 若或推而上하니 所謂推而上之法也라 凡上熱下冷者는 視其下脈之虛而陷之於經絡者補之하야 使上之氣下乃止라 此其熱在於上者를 若引而下之하니 所謂引而下之法也라 ○張: 此는 言下焦所生之氣가 從下而上也라 太陽爲諸陽主氣而太陽之氣는 生於膀胱水中이라 上寒下熱은 此太陽之氣留於下而不上이라 故로 先刺其項太陽하야 久留之以候氣至라 已刺則熨項與肩胛하야 令火熱與下之陽氣交合에야 乃止니 此所謂推而上之者也라----如上熱下寒하면 當視其虛脈而陷之於經絡者取之니 此因脈虛而氣陷於脈內하야 不能熏膚熱肉이라 故로 下寒也라 故로 當取之於經하야 俟氣下乃止니 此所謂引而下之者也라 ●景岳: 上寒下熱者는 陽虛於上而實於下也라 當先刺項間足太陽經大杼天柱等穴하야 久留其鍼而補之하고 仍溫熨肩項之間하야 候其氣至하야 上熱이 與下로 相合이라야 乃止其鍼이니 此所謂推其下

[4]大熱偏身 狂而妄見妄聞妄言 視足陽明及大絡取之 虛者補之 血而實者寫之 因其偃臥 居其頭前 以兩手四指挾按頸動脈 久持之 卷而切推 下至缺盆中 而復止如前 熱去乃止 此所謂推而散之者也

楊·馬·張·景岳·黃은 “上文은 上下의 寒熱에 治療法이 다 다르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전신의 大熱에 足陽明을 취해서 치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개 陽明經은 多氣多血해서 五臟六府의 海가 된다. 그러므로 다만 經脈에 이상이 있는지 絡脈에 이상이 있는지와 虛한지 實한지를 살펴 治療하면 全身의 熱을 除去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마땅히 患者를 반듯이 눕혀놓고 患者의 머리맡에 앉아 兩手의 大指, 食指 네 손가락으로 頸中動脈인 人迎이나 大迎 等穴을 按壓하는데 위에서 부터 아래로 오랫동안 눌러준다. 按壓할 때는 大迎에서부터 시작하여 缺盆까지 눌러주는데 이런 동작을 반복하여 熱이 내린 다음에 동작을 그친다. 대개 三陽經은 머리에 分布하고 있기 때문에 人迎을 취해서 그 熱을 몰아 내는 것이다.”<sup>35)</sup>고 하였다.

者而使之上也라 上熱下寒者는 陽實於上而虛於下也라 故로 當視其在下虛陷之經하여 取而補之호대 必使其陽氣下行而後止니 此引而下之之謂也라 按컨대 此二節에 言上下寒熱者는 非若前節所謂一經上實下虛而不通者 必有橫絡加於大經之比니 蓋彼는 言中有所隔이요 此는 言本末盛衰也라 證自不同하니 不可混看이라 ○黃: 刺項太陽은 足太陽之天柱大杼也라 令熱下合乃止는 令上熱與下相合也라

35) 楊: 足陽明主氣하야 其氣強盛하니 狂妄見聞及妄言은 多因此脈이라 故로 取足陽明正經及絡以去之也라 □足陽明上實下虛爲狂等病□補下虛經也라 上之血絡而實者는 可刺去血以寫之라 因令偃臥하야 以手按人迎之脈□下至缺盆中하고 復上來去하야 使熱氣洩盡하고 乃可休止라 故로 曰推而散之也라 有本에 爲腹上如前하니 恐錯也라 ○馬: 此는 治大熱之法也라 上文上寒下熱上熱下寒은 其熱이 非偏身者也라 狂而聞見言語가 以無爲有則熱之極也라 足陽明은 經多氣多血하야 爲五臟六腑之海라 故로 當視其足陽明之大絡取之하야 虛則補之하고 血而實

【考 察】

1. ‘血氣減’이 『甲乙』 卷七第三에는 ‘血氣盛’으로, 『太素』 卷二十二 「五邪刺」에는 ‘血氣泄’로 되어 있다. ‘血氣減’은 아래 문장에 ‘腠理閉汗不出’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서로 對句를 이루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잘못 補入된 것으로 보인다.

2. ‘汗大泄’이 『甲乙』 卷七第三과 『太素』 卷二十二 「五邪刺」, 藏本, 統本에는 ‘汗大泄’로 되어 있는데 文脈으로 보아 이것이 맞다.

3. ‘皮’가 『太素』 卷二十二 「五邪刺」에는 ‘肉’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앞에 ‘皮膚緩’이라는 글귀가 있어 중복되기도 하고 文脈으로 보

者則寫之라 又必因病人偃臥之際에 醫工居其頭前하고 以兩手各用大指食指共四指로 挾其頸之動脈而按之니 卽人迎大迎處也라 又久而持之하고 又卷而切之하야 下至缺盆之中而後止요 又如前法行之하야 候其熱去乃止니 此所謂推而散之之法也라 ○張: 此는 言中焦所生之氣 從中而出 散行於上下者也라 中焦之氣는 陽明水穀之悍氣也라 大熱偏身하야 狂而妄見妄聞은 此陽明之氣逆而爲熱狂也라 故로 當視足陽明之皮部及大絡取之하야 虛者는 補之하고 如逆於血脈之中而實者는 寫之라 蓋中焦之氣는 從大絡而出於皮膚者也라 其悍氣之上衝頭者는 循咽上走空竅하야 出下顛下客主人하고 循牙車하야 復與陽明之脈相合并하야 下人迎하고 從膈胸而下至足跗라 故로 當因其偃臥에 居其頭前하고 以兩手四指로 挾按頸中人迎之動脈하야 久持之라 蓋使悍熱之散於脈外하야 勿使合於脈中이니 此所謂推而散之者也라 ○景岳: 上文은 言上下之寒熱에 所治不同이요 此는 言偏身之大熱에 當取足之陽明也라 蓋陽明經이 多氣多血하야 爲五臟六府之海라 故로 但察其在經在絡과 或虛或實하야 而取之則偏身之熱을 可除也라 然이나 又當因病人之偃臥에 醫者居其頭之前하고 以兩手大食四指로 挾其頸中動脈於人迎大迎等處하야 自上而下로 按而久持之하고 卷而切推之하야 下至缺盆하고 止復如前하야 候其熱去하고 乃已라 蓋三陽在頭라 故로 可獨取人迎하야 而推散其熱也라 卷은 捲同이라 ○黃: 居其頭前은 醫居病者之頭前也라 按頸動脈은 足陽明之人迎也라 按之에 卷手而切推之하야 下至缺盆中하고 而復止如前하니 所以推其經熱而使之下也요 熱去乃止而不推라 此推而散之之法也라

아도 太素의 記載가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4. '取之而下之'가 『甲乙』卷七第三과 『太素』卷二十二「五邪刺」에는 '取而下之'로 되어 있는데 문맥으로 보아 이것이 맞다.

5. '令熱下冷'이 『千金』卷十四第五에는 '令熱下冷'으로 되어 있는데 文脈으로 보아 이것이 옳다.

6. '而復止如前'이 『太素』卷二十二「五邪刺」에는 '而復上如前'으로 되어 있는데 文義上 이것이 옳다.

#### 【直譯】

解結에 대하여 論해보면, 天地와 相應하고 四時와 相副하니 사람이란 天地에 참여하기 때문에 解結할 수 있습니다. 땅 아래에 水分이 많으면 위로 갈대와 부들이 생겨나니, 이것이 形氣의 多少를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陰陽은 寒暑이니, 더우면 雲雨로 피어올라 草木의 뿌리는 水分이 부족해집니다. 이때는 사람의 氣運도 밖에 있어 皮膚는 늘어지고 腠理는 열려 血氣가 減少되고 땀이 크게 나서 皮肉에 물기가 축축해 집니다. 추워지면 땅은 얼어붙고 물은 얼음이 됩니다. 이때는 사람의 기온도 속에 있어 皮膚는 緻密해지고 腠理는 닫혀 땀은 나오지 않고 血氣는 強盛하여 肌肉이 堅濇해 집니다. 이때에는 물을 잘 다루는 사람일지라도 얼음위로 건너갈 수 없고, 땅을 잘 파는 사람일지라도 언 땅을 팔 수는 없으니, 鍼을 잘 쓰는 사람일지라도 또한 四脈을 取할수 없고 血脈은 凝結되어 얼음처럼 딱딱히 굳어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柔軟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을 다루는 사람은 반드시 날씨가 풀려 얼음이 녹기를 기다려야만 뱃길을 열 수 있고, 땅도 팔 수 있으니, 사람의 經脈도 이와 같습니다. 脈을 다스리려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疔을 하여 그 經脈을 調和시키되 掌, 腋, 肘, 脚, 項, 脊을 調節해야만 火氣가 通하여 血脈이 운행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病脈을

보아 渾澤한 경우에는 鍼刺하여 和平하게 하고 緊繫한 경우에는 破散시키되 氣가 내리면 치료를 마치니, 이것이 이른바 解結입니다.

鍼을 활용하는 방법은 調氣에 달려 있으니, 氣는 胃에 쌓여 營衛를 流通시켜 각기 자기자리로 운행되도록 하고, 宗氣는 氣海에 머물러 아래로 내려가는 宗氣는 氣街로 注入되고 위로 올라가는 宗氣는 息道로 달려갑니다. 그러므로 厥이 다리에 있으면 宗氣가 下行하지 못하여 脈中の 血氣가 凝結되어 멈추게 되니, 火法으로 調節해 주지 않으면 낫지 않습니다. 鍼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經絡의 虛實을 살펴야 하니, 脈氣를 잘 살펴 그 變動狀態를 보고 난 다음에 取穴하여 病氣를 내려야 합니다. 六經이 調和를 이루고 있는 경우를 病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니, 비록 病症이 있을지라도 저절로 나을 것입니다. 一經이 上實下虛하여 氣가 通하지 않는 것은 橫絡이 大經脈에 가해져 不通된 것이니 血絡이 있는 부위를 보아 瀉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른바 解結이라고 합니다.

上寒下熱하면 먼저 項太陽을 刺鍼하여 오래 留鍼하고, 刺鍼하고 난 다음에는 뒷목과 肩胛을 疔질하여 따뜻해진 다음에 치료를 마치니, 이것이 이른바 熱을 밀어 올린다는 것입니다. 上熱下寒하면 그 虛脈을 보아 그 經絡으로 熱을 陷下시켜야 하는데 熱氣가 내리면 치료를 마치니, 이것이 이른바 熱을 끌어내린다는 것입니다.

온 몸에 大熱이 있어 精神이 혼미해져 妄見, 妄聞, 妄言을 하게 되면 足陽明과 大絡을 살펴 치료하되, 虛한 경우는 補하고 血이 實한 경우는 寫합니다. 그런 다음 患者를 반듯하게 눕히고 머리말에 앉아 양손의 네 손가락으로 頸動脈을 오래도록 按壓하는데 人迎에서 缺盆까지 反復하여 指壓하여 熱이 내리면 그치니 이것이 이른바 밀어서 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 第四章. 邪變無窮

## 【原文】

黃帝曰 有一脈1)에 生數十病者하야 或痛或癢하며 或熱或寒하며 或痒或痺或不仁하야 變化無窮하니 其故는 何也오

岐伯이 曰 此皆邪氣之所生也니이다

黃帝曰 余聞호니 氣者엔 有眞氣하며 有正氣하며 有邪氣라하니 何謂眞氣오

岐伯이 曰 眞氣者는 所受於天하야 與穀氣로 并而充身也2)요 正氣者는 正風也라 從一方來하니 非實風이요 又非虛風也3)며 邪氣者는 虛風之賊傷人也4)니 其中人也深하야 不能自去하고 正風者는 其中人也淺하야 合(1)而自去5)하니 其氣來柔弱하야 不能勝眞氣라 故로 自去라

虛邪之中人也엔 洒淅6)動形하며 起毫毛而發腠理하니 其入深하야 內搏於骨則爲骨痺요 搏於筋則爲筋攣이요 搏於脈中則爲血閉不通하야 則爲癢이요 搏於肉하야 與衛氣로 相搏하면 陽勝者는 則爲熱하고 陰勝者는 則爲寒하니 寒則眞氣去하고 去則虛하고 虛則寒하야 搏於皮膚之間이라 其氣外發에 腠理開하고 毫毛搖호대 氣往來行7)則爲痒이요 留而不去則痺요 衛氣不行則爲不仁이라

虛邪偏容於身半8)에 其入深하야 內居營衛하야 營衛稍衰則眞氣去하고 邪氣獨留하야 發爲偏枯요 其邪氣淺者는 脈偏痛이라

虛邪之入於身也 深하야 寒與熱相搏이라가 久留而內著호대 寒勝其熱則骨疼肉枯요 熱勝其寒則爛肉腐肌爲膿하야 內傷骨하니 內傷骨하면 爲骨蝕9)이라

有所疾前筋10)하야 筋屈不得伸하고 邪氣居其間而不反이면 發于筋溜11)요

有所結하면 氣歸之하니 衛氣留之하야 不得反12)하야 津液久留하면 合而爲腸溜요

久者13)는 數歲乃成하니 以手按之柔나 已有所結14)하야 氣歸之하고 津液留之한대 邪氣中

之면 凝結이 日以易甚15)하고 連以聚居하야 爲昔瘤요

以手按之堅하고 有所結하야 深中骨하면 氣因於骨이니 骨與氣并하야 日以益大면 則爲骨疽요

有所結하야 中於肉하면 宗氣(2)歸之16)하고 邪留而不去하니 有熱則化而爲膿이요 無熱則爲肉疽라 凡此數氣者는 其發無常處而有常名也니이다

## 【校勘】

1) 有一脈: 『甲乙』卷十第一에는 '或有一脈'으로 되어 있다.

2) 并而充身也: 『甲乙』卷十第一, 馬注本, 張注本에는 '并而充身者也'로 되어 있다.

3) 正氣者正風也 從一方來 非實風 又非虛風也: 『甲乙』卷十第一에는 '正氣者正風也 從一方來 非虛風也'로 되어 있다.

4) 邪氣者 虛風之賊傷人也: 『甲乙』卷十第一에는 '邪氣者 虛風也 虛風之賊傷人也'로 되어 있다.

5) 正風者 其中人也淺 合而自去: 『甲乙』卷十第一에는 '正風者 其中人也淺而自去'로 되어 있다.

6) 洒淅: 『甲乙』卷十第一에는 '淒索'으로 되어 있다.

7) 氣往來行: 『甲乙』卷十第一에는 '氣往來微行'으로 되어 있다.

8) 虛邪偏容於身半: 『甲乙』卷十一第九에는 '虛邪偏客於身半'으로 되어 있다.

9) 熱勝其寒則爛肉腐肌爲膿 內傷骨 內傷骨爲骨蝕: 『甲乙』卷十第一에는 '熱勝其寒則爛肉腐肌爲膿 內傷骨爲骨蝕'으로 되어 있다.

10) 有所疾前筋: 『甲乙』卷十一第九에는 '有所疾前'으로 되어 있다.

11) 發于筋溜: 『甲乙』卷十一第九에는 '發于筋溜'로 되어 있고 周本, 張注本, 日刻本, 『類經』에는 '發爲筋溜'로 되어 있다.

12) 不得反: 『甲乙』卷十一第九에는 '不得復

反'으로 되어 있다.

13) 久者: 『甲乙』 卷十一第九에는 '久留者'로 되어 있다.

14) 已有所結: 『甲乙』 卷十一第九에는 '有所結'로 되어 있다.

15) 日以易甚: '日以易甚'의 '易'는 바로 밑에 '日以益大'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益'의 誤字로 보인다.

16) 宗氣歸之: 『太素』 首篇에는 '氣歸之'로 되어 있다.

【字句解】

(1) 合: 邪氣가 眞氣와 합쳐짐 즉 邪氣의 侵入을 의미함.

(2) 宗氣: 大氣.

【較註】

[1]黃帝曰 有一脈生數十病者 或痛或癢或熱或寒或痒或痺或不仁 變化無窮 其故何也 岐伯曰 此皆邪氣之所生也

楊·馬·張·景岳은 "一脈은 一經이라는 말과 같다. 邪氣는 아래 문장의 虛風이다. 虛邪와 賊風은 侵犯部位가 넓고 症狀이 잘 변하기 때문에 이것에 적중되면 變化가 無窮한 것이다."<sup>36)</sup>고 하였다.

[2]黃帝曰 余聞氣者有眞氣有正氣有邪氣 何謂眞氣 岐伯曰 眞氣者所受於天與穀氣并而充身

36) 楊: 上經十二經脈은 生病各異라 此는 言一脈生數十種病하야 變化無窮者는 十二經生病하야 非無有□至於變化하니 亦不可窮이라 故로 欲取者는 甚須審察이요 不可輕然以定是非也라 ○馬: 此는 言一脈而生數十病者 皆邪氣之所生也 邪氣者는 卽下文之虛邪也라 蓋虛邪賊風은 善行而數變 故로 爲病之多有如是也라 ○張: 此下는 論邪氣之傷人에 營衛宗氣則眞氣去하고 邪獨留하야 邪氣淫洩하야 變化無窮하니 是以로 一脈而生數十病也라 ●景岳: 一脈은 猶言一經也라 邪氣는 卽下文之虛風也라 虛邪賊風은 善行數變 故로 其爲病則變化無窮이라

也 正氣者正風也 從一方來 非實風 又非虛風也 邪氣者虛風之賊傷人也 其中人也深 不能自去 正風者其中人也淺 合而自去 其氣來柔弱 不能勝眞氣 故自去

馬·張·景岳은 "眞氣는 바로 元氣이다. 하늘에 있는 氣는 코로 받아들기 때문에 喉頭에서 주관하고, 水穀에 있는 氣는 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咽頭에서 주관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모이는 기운을 先天之氣라 하고 태어난 다음에 형성되는 기운을 後天之氣라고 하며, 陽分에 있는 氣는 바로 陽氣이고 陰分에 있는 氣는 陰氣이며 表에 있는 氣를 衛氣라 하고 裏에 있는 氣를 營氣라고 하며 脾臟에 있는 氣를 充氣라 하고 胃臟에 있는 氣를 胃氣라고 하며 上焦에 있는 氣를 宗氣라 하고 中焦에 있는 氣를 中氣라고 하며 下焦에 있는 氣를 元陰, 元陽의 氣라고 하니 다 그 별명일 따름이다. 從一方來라는 것은 太一이 머무는 方所이고, 季節에 걸맞게 불어오는 바람을 正風이라고 한다. 그러나 正風과 實風이 본래 同一한 方向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여기에서 實風이 아니라고 한 것은 正風은 和緩하게 불어오기 때문에 또 正氣라고도 말하고, 實風은 強烈하게 불어오기 때문에 虛風과 相對해서 말한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歲露論에 '모든 이른바 風이라는 것은 다 집과 나무를 무너뜨리고 沙石을 날리게 하니 이것이 虛風과 實風이다.'고 하였다. 위에서 불어오는 것은 虛風이니, 이에 적중되면 병이 심해지기 때문에 저절로 낫지 않는다. 合而自去라는 것은 邪氣와 正氣가 합쳐졌더라도 正氣가 邪氣를 이기기 때문에 병이 저절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sup>37)</sup>고 하였다.

37) 馬: 此는 承上文而言氣分爲三이로되 唯邪氣能傷眞氣也라 眞氣者는 與生俱生하니 受之於天日與穀氣하야 相并而充滿於身者也라 正氣者는 正風也라 從一方來하니 此風은 非實非虛라 如春之東風夏之南風秋之西風冬之北風者가 是也라 其中人也淺은 以其風氣之來柔弱하야 不能

[3]虛邪之中人也 洒漸動形 起毫毛而發腠理 其入深內搏於骨則爲骨痺 搏於筋則爲筋攣 搏於脈中則爲血閉不通則爲癰 搏於肉與衛氣相搏 陽勝者則爲熱 陰勝者則爲寒 寒則眞氣去 去則虛虛則寒 搏於皮膚之間 其氣外發 腠理開 毫毛搖氣往來行則爲痒 留而不去則痺 衛氣不行則爲不仁 馬·張·景岳은 “이는 위의 글에 이어 虛邪가 사람한테 깊이 침입해 들어오면 骨痺, 筋攣, 癰, 熱, 寒, 癢, 不仁 등의 病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虛邪가 인체에 침범하는 初期에는 으슬으슬 惡寒이 나서 몸이 떨리고 습털이 일어나고 腠理가 發泄되다가, 그 邪氣가 깊이 들어가 骨로 침범해 들어가면 骨痺가 되고, 筋으로 침범해 들어가면 筋攣이 되며, 脈中으로 들어가면 血脈이 閉塞되어 바로 癰腫이 되고, 肉으로 침범해 들어가면 衛氣와 다투게 되는데 이 때에 陽氣가 우세한 경우에는

熱이 되니 바로 陽經의 氣가 陰經을 이긴 것이고 陰氣가 우세한 경우에는 寒이 되니 바로 陰經의 氣가 陽經을 이긴 것이다. 寒邪가 우세해 지면 眞氣가 사라져 날로 虛해 지는데 그렇게 되면 寒邪가 皮膚사이로 침범하게 된다. 邪氣가 外部로 發泄될 때에 腠理가 열려 淫氣가 往來하게 되면 癢이 되고, 邪氣가 머물러 빠져나가지 않으면 痺가 되며, 衛氣가 운행되지 않으면 不仁이 되어 痛癢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sup>38)</sup>고 하였다.

[4]虛邪偏容於身半 其入深內居營衛 營衛稍衰則眞氣去 邪氣獨留 發爲偏枯 其邪氣淺者 脈偏痛

馬·張·景岳은 “虛邪가 몸의 左右中 한쪽으로만 침범하여 病이 깊고 중한 경우에는 營衛가 衰弱해지고 眞氣가 사라져 偏枯가 발생하

勝眞氣故耳라 邪氣者는 乃虛風之賊傷人者也니 如冬居牙蟄之宮而風自後來者가 是也라 其中人也深하야 不能自去也니 所以 變化無窮而一脈有數十病耳라 ○張: 所受於天者는 先天之精氣요 穀氣者는 後天水穀之精氣니 合井而充身者也라 正氣者는 大塊噓氣니 其名爲風이라 從一方來하니 非實風이요 又非虛風이니 此天地之正氣也라 虛風者는 從虛鄉來之賊風이니 傷人正氣라 其中人也深하야 不能自去라 正風者는 其中人也淺하야 與眞氣合而自去라 蓋其氣來柔弱하야 不能勝眞氣라 故로 自去라 ○景岳: 眞氣는 卽元氣也라 氣在天者는 受於鼻而喉主之하고 在水穀者는 入於口而咽主之라 然이나 鍾於未生之初者를 曰先天之氣요 成於已生之後者를 曰後天之氣라 氣在陽分卽陽氣요 在陰卽陰氣며 在表를 曰衛氣요 在裏를 曰營氣며 在脾를 曰充氣요 在胃를 曰胃氣며 在上焦를 曰宗氣요 在中焦를 曰中氣며 在下焦를 曰元陰元陽之氣니 皆無非其別名耳라 從一方來는 謂太一所居之方也요 風得時之正者는 是爲正風이라 然이나 正風實風이 本同一方이어늘 而此曰非實風者는 以正風之來徐而和라 故로 又曰正氣요 實風之來暴而烈이라 故로 與虛風으로 對言也라 按歲露論에 曰 諸所謂風者는 皆發屋折樹木揚沙石하니 此虛風實風之謂也라하니 詳運氣類三十五六이라 從衝後來者爲虛風이니 其中人也甚이라 故로 深入不能自去라 合而自去는 謂邪與正合而正勝之라 故로 自去也라

38) ●馬: 此는 承上文而言虛邪入人之深有爲骨痺爲筋攣爲癰爲熱爲寒爲癢爲不仁等病也라 虛邪之中人也初時에 灑漸惡寒以振動其形하며 起人毫毛發人腠理라가 其邪既入深內하야 搏於骨則爲骨痺요 搏於筋則爲筋攣이요 搏於脈中而血閉不通則爲癰腫이요 搏於肉而與衛氣相搏하야 當是時에 陽氣勝者는 則爲熱이니 乃陽經之氣勝陰經也요 陰氣勝者는 則爲寒하니 乃陰經之氣勝陽經也라 寒則眞氣去而日虛하야 其寒搏於皮膚之間이라 邪氣外發에 腠理開其毫毛하야 淫氣往來而行則爲癢이요 留而不去則爲痺요 衛氣不行則爲不仁이니 不知痛癢이라 ○張: 此는 言虛邪之傷形也라 灑漸動形故로 搏於皮膚肉筋骨而爲爲攣爲癰爲癢이라 陰勝則爲寒하고 寒則眞氣去하야 有傷衛氣則爲不仁이라 此는 皆邪氣之所生也라 ○景岳: 洒漸은 寒慄也라 邪之中人이 變不可測이라 故로 無分皮肉筋骨하고 著則爲病也라 若與衛氣相搏하야 陽勝則熱하고 陰勝則寒하니 皆邪氣也어늘 何獨曰寒則眞氣去하니 去則虛야 蓋氣屬陽하고 人以氣爲主로되 寒勝則陽虛하니 所重在氣也요 陽氣既虛則陰寒이 搏聚於皮膚之間矣라 邪之在表者는 其氣外發하니 或腠理開則汗爲不斂하고 或毫毛動搖則毛悴而敗하고 或氣往來行則流而爲痒하고 或邪留不去則痛而爲痺하고 若衛氣受傷하야 虛而不行則不知痛痒하니 是謂不仁이라

고, 邪氣의 침범부위가 얇고 가벼운 경우에는 몸의 半身에 痛症이 오게 된다.”<sup>39)</sup>고 하였다.

[5]虛邪之入於身也深 寒與熱相搏 久留而內著 寒勝其熱則骨疼肉枯 熱勝其寒則爛肉腐肌爲膿 內傷骨 內傷骨爲骨蝕 有所疾前筋 筋屈不得伸 邪氣居其間而不反 發爲筋溜 有所結 氣歸之 衛氣留之 不得反 津液久留 合而爲腸溜 久者數歲乃成 以手按之柔 已有所結 氣歸之 津液留之 邪氣中之 凝結日以易甚 連以聚居爲昔瘤 以手按之堅 有所結 深中骨 氣因於骨 骨與氣并 日以益大則爲骨疽 有所結 中於肉 宗氣歸之 邪留而不去 有熱則化而爲膿 無熱則爲肉疽 凡此數氣者 其發無常處而有常名也

馬·張·景岳·校釋은 “ 邪氣가 外部에서 적중되면 반드시 惡寒이 나고 氣가 속에 쌓이게 되면 반드시 熱이 나며, 寒邪가 깊이 들어가 熱과 서로 다투어 오래 留滯되면 반드시 안으로 固着되게 된다. 그러므로 寒氣가 우세하면 陽氣를 이겨 아프고 마르게 되며, 熱이 우세하면 陰氣를 손상시켜 고름이 되거나 썩게 되며, 가장 깊이 들어갈 경우에는 骨을 상하게 되는데, 이것이 骨蝕이니 侵蝕이 骨에 까지 미쳤다는 말이다. 有所疾前筋은 疾病이 筋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이다. 筋에 처음으로 邪氣가 固着되면 筋을 쓸 수 없게 되고 만약 그 사이에 오래 머물러 물러가지 않으면 筋溜가 발생한다. 筋溜는 邪氣가 流注하다가 筋에 結聚된 것이니 바로 贅瘤의 等屬이다. 邪氣가 脈에 結滯되면 氣가 기필 돌아가 운행이 안되게 된다. 그러므로 衛氣가 失常되게 되고, 邪氣가 머물러 돌아가지 않으면 속에 積積되어

腸胃사이로 流注하다가 멎어서 腸溜를 형성하게 된다. 그 오래 된 것은 몇 년 지나 다음에 형성되게 된다. 그러나 病이 처음 시작될 때에 눌러보면 비록 부드러워 위 아래로 움직이나 이니 結聚된 것이고, 시간이 오래 지나 氣가 점점 물리고 津液이 留滯된 데다가 다시 邪氣에 적중되면 날로 심해져 昔瘤가 된다. 昔瘤는一朝一夕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다. 또 눌러보아 딱딱한 것은 骨에 까지 침입한 것이니 邪氣가 骨에 영향을 주어서 그런 것이다. 骨과 邪氣가 併合하여 그 結聚部位가 날로 확대되면 附骨疽가 된다. 또 肌肉으로 結聚된 경우에는 宗氣가 물리게 된다. 宗은 大의 뜻이니 陽明의 氣를 이야기한 것이다. 邪氣가 停留되어 熱이 발생되면 肌肉을 썩게 만들기 때문에 膿이 형성되고, 熱이 없으면 粉漿 等屬이 되어 흩어지지 않으니 이것이 肉疽이다. 비록 一定한 이름은 있으나 發生部位에 일정한 곳이 없고, 일정한 發生部位가 없으면 形證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變化가 無常하다고 하는 것이다.”<sup>40)</sup>고 하였다.

39) 馬：此는 承上文而言虛邪之中人深則爲偏枯요 淺則脈痛이니 皆變化無窮之義也라 ○張：此는 邪氣偏客於形하야 傷其營衛則眞氣去而爲偏枯也요 其邪氣淺者는 脈偏痛이라 蓋偏枯者는 邪直傷於筋骨也라 ●景岳：虛邪若中於半身에 其入深而重者는 則營衛衰하고 眞氣去하야 乃發爲偏枯요 若邪之淺者는 亦當爲半身偏痛也라

40) 馬：此는 承上文而悉學虛邪中之病도 亦變化無窮之義也라 虛邪入於人者가 既深則寒與熱相搏하니 如久留而內者에 其寒勝夫熱則骨疼而肉枯요 熱勝夫寒則爲肉爛而肌腐며 且爲膿及內傷其骨也니 內傷其骨則爲骨蝕이라 骨蝕者는 骨有所損也니 必有所所라 如內傷其筋而疾在前筋則筋自屈而不得伸하고 邪氣居其中而不出則發爲筋溜라 筋溜者는 筋有所流注也니 亦必有所所라 如邪氣有所結而歸於內하면 衛氣亦留於內而不得出하야 以反於外하니 所以津液亦久留於其中則合而爲腸溜라 腸溜者는 腸有所流注也라 久者는 數歲乃成하니 以手按之則可至於柔나 然이나 亦必有所所라 如或邪氣之結者歸於內하야 津液留於內한대 而又有邪氣中之則凝結易至於日甚하야 遂致相連而聚於其內하니 則爲昔瘤라 言非一日而成者也요 以手按之則堅而有定所也라 又或結深中骨則邪氣內於骨하니 骨與氣并하야 日以益大則爲骨疽니 亦有所所라 若或結氣中之於肉하면 上焦宗氣正行於其所어늘 被邪氣留而不去하야 如有熱則化而爲膿이요 如無熱則止爲肉疽라 凡此數等邪氣는 其發雖無一定之處나 而各有一定之名也라 ○張：此는 虛邪傷

## 【考察】

1. '正氣者正風也 從一方來 非實風 又非虛風也'가 『甲乙』 卷十第一에는 '正氣者正風也 從一方來 非虛風也'로 되어 있다. 그런데 『靈樞·九宮八風』에 "風從其所居之向來爲實風이니 主生長養萬物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實風'은 正風에 속하므로 『甲乙』의 記載가 옳은 것으로 보인다.

2. '虛邪偏容於身半'이 『甲乙』 卷十第一에는 '虛邪偏容於身半'으로 되어 있는데, '容'은 그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甲乙』의 記載가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3. '熱勝其寒則爛肉腐肌爲膿 內傷骨 內傷骨

氣而病形也라 寒與熱搏者는 形中之陰陽二氣也라 蓋形舍氣하고 氣歸形하니 形氣之相合也라 是以로 傷形則病氣하고 傷氣則病形이라 結氣歸之者는 寒熱相搏之氣가 歸於邪留之形所也라 凡此數氣者는 其發無定處而有肉枯骨蝕筋溜音溜之定名也 末論邪氣病形은 則眞氣去而營衛傷이라 蓋眞氣者는 出入於節之交하야 遊行於皮膚肌腠之間者也라 ●景岳: 邪中於外者는 必寒하고 氣畜於內者는 必熱하며 寒邪深入하야 與熱相搏하야 久留不去면 必內有所著이라 故로 寒勝則傷陽而爲痛爲枯하고 熱勝則傷陰而爲膿爲腐하며 其最深者는 內傷於骨하니 是爲骨蝕이니 謂侵蝕及骨也라 有所疾前筋은 謂疾有始於筋也라 筋之初著於邪則筋屈不得伸하고 若久居其間而不退則發爲筋溜니 筋溜者는 有所流注而結聚於筋也니 卽贅瘤之屬이라 邪有脈結하면 氣必歸之라 故로 致衛氣失常이요 留而不反則 滯積於中하야 流注於腸胃之間하야 乃結爲腸溜라 其有久者는 必數歲而後成也라 然이나 其始也에 按之雖柔하야 或上或下나 已有所結이요 及其久也에 氣漸歸之하고 津液留之한대 復中邪氣則易於日甚하야 乃結爲昔瘤니 昔瘤者는 非一朝夕之謂라 又有按之而堅者는 其深中骨이니 是氣因於骨而然이라 骨與氣并하야 其結日大면 名爲附骨疽也라 又有結於肉中者는 則宗氣歸之라 宗은 大也니 以陽明之氣爲言이라 邪留爲熱則潰腐肌肉이라 故로 爲膿이요 無熱則結爲粉漿之屬하야 聚而不散하니 是爲肉疽라 雖有常名이나 而發無常處요 無常處則形證도 亦無常矣니 此所以變化無常也라 ○校釋: 骨蝕은 指骨被侵蝕이라 昔瘤의 昔은 乾肉也라 見說文日部견대 肉乾則堅이라하니 此昔瘤는 正謂其堅也니 與下文按之堅으로 義合이라

爲骨蝕'이 『甲乙』 卷十第一에는 '熱勝其寒則爛肉腐肌爲膿 內傷骨爲骨蝕'으로 되어 있는데, 文脈으로 보아 '內傷骨'은 잘못 重複된 것 같다.

4. '有所疾前筋'이 『甲乙』 卷十一第九에는 '有所疾前'으로 되어 있는데 둘 다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綱目』 癰瘤注에 "疾前二字는 衍文也니 筋當作結이라"하였는데, 바로 밑에도 '有所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說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5. '發于筋溜'가 『甲乙』 卷十一第九에는 '發于筋瘤'로 되어 있고 周本, 張注本, 日刻本, 類經에는 '發爲筋溜'로 되어 있는데, '于'는 '爲', '溜'는 '瘤'의 誤字로 보인다.

6. '日以易甚'의 '易'는 바로 밑에 '日以益大'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益'의 誤字로 보인다.

7. '宗氣歸之'가 『太素』 首篇에는 '氣歸之'로 되어 있는데, 文脈으로 보아 이것이 옳다. 景岳은 宗氣를 大氣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陽明之氣로 해석하였다.

##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셨다. "一脈에 數十病이 생겨 或痛, 或癱, 或熱, 或寒, 或痺, 或不仁하여 變化가 無窮하니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岐伯이 말씀하였다. "이는 다 邪氣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셨다. "내 들으니 氣에는 眞氣, 正氣, 邪氣가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眞氣라고 합니까?"

岐伯이 말씀하였다. "眞氣는 하늘에서 받아 穀氣와 더불어 함께 몸을 채우는 것이고, 正氣는 正風이라서 한 방향에서 불어오니 實風도 아니고 또 虛風도 아니며, 邪氣는 虛風으로서 사람을 傷하게 하는 것이니 그 사람을 적중시킴이 깊어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正風은 사람에게 적중됨이 얇아 침범되어도 스스로 물러나는데 그 氣가 오는 것이 柔弱하여 眞氣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몰려갑니다.

虛邪가 사람한테 침범하면 몸이 오싹오싹 떨리고 숨털이 일어나며 腠理가 열리게 되는데, 그 침범부위가 깊어 안으로 骨에 까지 이르게 되면 骨痺가 되고, 筋으로 침범하면 筋攣이 되며, 脈가운데로 침범하면 血脈이 閉塞되어 癰이 되고, 肌肉으로 침범하여 衛氣와 다투게 될 때에 陽이 우세한 경우에는 熱邪가 되고, 陰이 우세한 경우에는 寒邪가 됩니다. 寒邪가 침범하면 眞氣가 사라지고, 眞氣가 사라지면 몸이 虛해지고 虛해지면 더욱 寒邪가 皮膚사이로 침범하게 됩니다. 그 기운이 外部로 발산될 때에는 腠理가 열리고 毫毛가 搖動하게 되는데, 氣가 往來하게 되면 痺이 되고 머물러 물러가지 않으면 痺가 되며 衛氣가 운행되지 않으면 不仁이 됩니다.

虛邪가 인체의 반쪽으로는 깊이 침범하여 안으로 營衛部位에 머물러 營衛가 조금이라도 衰해지게 되면 眞氣가 사라지고 邪氣만이 남아 偏枯가 발생하고, 그 邪氣가 輕淺할 경우에는 한쪽 經脈에만 痛症이 옵니다.

虛邪가 인체에 침범하는 경우에는 대개 병이 깊어서 寒과 熱이 서로 다투다가 오래 머물게 되면 안으로 固着되게 되는데, 寒이 熱보다 우세하면 骨疼, 肉枯가 되고 熱이 寒보다 우세하면 肌肉이 腐爛되어 膿을 형성하였다가 결국에는 骨까지 상하게 하는데 안으로 骨까지 손상되면 骨蝕이 됩니다.

虛邪가 먼저 筋으로 침범하여 筋을 쓸 수 없고 邪氣가 그 사이에 머물러 돌아가지 않으면 筋溜가 발생합니다. 虛邪가 結聚되면 氣가 물리게 되니, 衛氣가 머물러 돌아가지 못하여 津液조차 오래 留滯되면 腸溜가 되는데, 오래된 것은 몇 년만에야 형성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를 손으로 만져보면 부드러운 것 같으나 이미 結聚가 일어나 氣가 물리고 津液도 留滯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다시 邪氣에 적중되면 癥結이 날로 심해지고 이어 딱딱한 積聚가

되어 昔癰가 발생합니다. 손으로 만져 보았을 때 탄탄하고 結聚된 부분이 있어 骨部位에서 까지 만져지면 邪氣가 骨에 까지 미친 것이니, 骨이 邪氣와 병합되어 날로 확대되면 骨疽가 됩니다. 虛邪가 結聚되어 肌肉으로 침범하면 氣가 물리게 되고 邪氣는 머물러 사라지지 않으니, 이때 熱이 있으면 化膿되고, 熱이 없으면 肉疽가 됩니다. 무릇 이 몇 가지는 그 발생에 일정한 장소가 없으나 病症에 따른 일정한 病名은 있게 됩니다.”

#### IV. 意 譯

黃帝가 岐伯에게 물기를 “내 듣기에 刺法에 五節이 있다고 하니 무엇입니까?”

岐伯이 대답하였다. “참으로 五節이 있으니, 첫 번째는 振埃요 두 번째는 發矇이요 세 번째는 去爪요 네 번째는 徹衣요 다섯 번째는 解惑입니다.”

黃帝가 말씀하였다. “夫子가 五節에 대하여 말씀하였으나 내 그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岐伯이 말하였다. “振埃는 四肢나 體表의 經絡을 刺鍼하여 陽病을 제거하는 것이고, 發矇은 六腑輸穴을 刺鍼하여 六府病을 제거하는 것이며, 去爪는 關節과 肢絡(혹 孫絡)을 刺鍼하는 것이고, 徹衣는 諸陽의 別絡을 모두 刺鍼하는 것이며, 解惑은 陰陽을 모두 調節할 줄 알아 有餘와 不足을 補瀉하여 陰陽을 變化시키는 것입니다.”

黃帝가 말씀하였다. “刺節에 振埃를 夫子께서 外經을 刺鍼하여 陽病을 제거한다고 하였는데 내 그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願컨대 모두 듣고자 합니다.”

岐伯이 말씀하였다. “振埃는 陽氣가 크게 逆上하여 위로 胸中에 가득해져 脹滿되거나 어깨로 숨을 쉬거나 大氣가 逆上하여 숨을 헐

떡이고 앉아 있거나 엎드려 있게 되며 먼지와 연기를 싫어하여 목이 막혀 숨을 잘 쉴 수 없게 되는데, 振埃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그 치료법이 항상 먼지를 떨어내는 것보다 빠릅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좋습니다. 이를 取하는 데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岐伯이 말씀하셨다. “天容에서 取합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기침으로 上氣가 되어 氣가 퍼지지 않고 胸痛이 있는 경우는 어디를 취해야 합니까?”

岐伯이 말씀하셨다. “廉泉에서 취합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取함에 방법이 있습니까?”

岐伯이 말씀하셨다. “天容을 취할 때는 刺鍼깊이를 一寸 以上 깊이 놓지 말고, 廉泉을 취할 때는 血脈이 소통되어 血色이 變하면 그 처야 합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좋습니다. 刺節에 發膿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으나 내 그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무릇 發膿은 귀로 소리를 잘 듣지 못하고 눈으로 물체를 잘 보지 못하는 것인데, 夫子께서는 六腑輸穴을 刺鍼하여 六府病을 제거한다고 하니 어떤 輸穴이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願컨대 그 이유에 대하여 듣고자 합니다.”

岐伯이 말씀하셨다. “妙합니다. 질문이시여! 이는 刺法의 大 基準이고, 鍼術의 至極한 점이며, 神明의 部類이니 말과 책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請컨대 發膿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그 효과가 항상 發膿보다 빠르다고 하겠습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좋습니다. 願컨대 모두 듣고자 합니다.”

岐伯이 말씀하셨다. “이를 刺鍼하는 道理는 期必 日中에 聽官을 刺鍼할 것이니, 그 鍼響이 眸子에까지 울리고 그 소리가 귀에 들리면 이곳이 바로 그 輸穴입니다.”

黃帝가 말씀 하셨다. “좋습니다. 무엇을 귀

에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까?”

岐伯이 말씀하셨다. “邪氣를 刺鍼할 때에 손으로 코를 꼭 막고 재빨리 누우면(혹 숨을 참고 소리가 새나가는 것을 막으면) 그 소리가 반드시 鍼에 응합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좋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보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알아 다스린다는 것이니 神明을 터득한 것입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刺節에 去爪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夫子께서 關節과 肢絡을 刺鍼한다고 하였는데 願컨대 모두 듣고자 합니다.”

岐伯이 말씀하셨다. “腰脊은 몸의 大關節이요, 肢脛은 關鍵으로서 몸을 앞뒤로 움직이게 해주는 器官이며, 莖垂는 몸 가운데의 機械로서 陰精의 微候가 나타나고 津液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飲食을 不節制하고 喜怒를 制御하지 않아 津液이 안으로 넘치면 바로 牽丸으로 내려가 停留되어 血道가 不通됩니다. 이렇게 되면 牽丸이 날로 커져 몸을 일으키기도 구부리지도 못하게 되고 잘 걷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 病은 水氣가 멎쳐 올라가기도 내려가기도 않으니 鉞石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浮腫의 형태를 항상 숨길 수 없고 항상 은폐시킬 수 없으나 치료를 잘하면 쉽게 낫기 때문에 去爪라고 합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좋습니다. 刺節에 撤衣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夫子께서 諸陽의 別絡을 모두 刺鍼해야 하는데 常處는 없다 하였으니 願컨대 모두 듣고자 합니다.”

岐伯이 말씀하셨다. “이는 陽氣가 有餘하고 陰氣가 不足한 것입니다. 陰氣가 不足하면 속에 熱이 있게 되고 陽氣가 有餘하면 밖으로 熱이 있게 되니, 內外의 熱이 서로 얽히면 석탄을 품에 안고 있는 것보다 뜨거워져 밖으로 숨웃이나 비단옷을 입지 않으려 하고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며 따뜻한 자리에 앉지 않으려 합니다. 腠理가 閉塞되면 땀이 나오지

않고 혀가 타고 입술이 마르며 肌肉과 목이 말라 飲食의 맛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좋습니다. 이를 취하는 방법은 어떠합니까?”

岐伯이 말씀하였다. “或 天府, 大杼에다 세 번 자침하고, 또 中膞에 刺鍼하여 熱을 없애고 手足太陰에 刺鍼하여 汗을 내면 熱은 제거되고 汗은 가시어 옷을 벗는 것보다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납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좋습니다. 刺節에 解惑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夫子께서 陰陽을 모두 조절할 줄 알아 有餘와 不足을 補瀉하여 변화시켜야 한다고 하셨는데, 惑이 어떻게 풀어집니까?”

岐伯이 말씀하였다. “大風이 몸에 있게 되면 血脈이 偏虛하여 虛한 사람은 더욱 不足해지고 實한 사람은 더욱 有餘해지니 輕重이 서로 걸맞지 않아 몸이 기울어지거나 돌아가며 (혹 몸을 전후좌우로 운동하지 못하게 되며) 東西南北을 알지 못하게 되고 어떤 때는 올라갔다 어떤 때는 내려갔다 하여 反覆의 顛倒가 無常하여 迷惑보다 심하게 됩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좋습니다. 이를 취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岐伯이 말씀하였다. “그 有餘한 것을 瀉하고 그 不足한 것을 補하여 陰陽을 和平하게 회복시켜야 하니, 이와 같이 鍼을 활용하면 迷惑을 푸는 것보다 그 효과가 빠르게 됩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좋습니다. 請컨대 藏書室에 보관하여 함부로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내 들으니 刺法에 五邪가 있다고 하니 무엇을 五邪라 합니까?”

岐伯이 말씀하였다. “病에 持癰, 容大, 狹小, 熱, 寒이 있으니 이를 五邪라 합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五邪를 刺鍼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岐伯이 말씀하였다. “무릇 五邪를 刺鍼하는 방법은 五章에 지나지 않으니, 痺熱은 消滅하고 腫聚는 散亡하고 寒痺는 溫補하고 小者는

壯陽하고 大者는 반드시 제거하니 請컨대 그 道理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릇 癰邪를 刺鍼할 때에는 邪氣가 極盛한 경우에는 直接的으로 瀉하려 해서는 아니 되니 風俗과 性品을 바꾸는데 많은 시간이 들듯 餘裕를 갖고 침착하게 대처해야 하고, 膿을 형성하지 않았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그 邪氣가 向하는 곳을 除去하여 邪氣가 편히 머물지 못하게 하면 마침내 흩어지게 되니, 모든 陰經과 陽經으로 지나가는 癰은 그곳에 해당되는 輸穴을 取해서 寫합니다.

무릇 大邪를 刺鍼할 때에는 날마다 작아지게 하여 그 有餘한 邪氣를 泄散시켜야 비로소 더욱 邪氣가 虛해지니, 邪氣가 지나가는 通路를 劫迫하여 그 곳에 鍼을 놓되 肌肉을 親히 보아 그 眞氣에 違反됨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모든 陽分의 肌肉사이를 刺鍼합니다.

무릇 小邪를 刺鍼할 때에는 正氣를 날마다 증대시켜 그 不足한 기운을 補해야만 비로소害가 없으니, 그 邪氣의 所在를 파악하여 그곳만 가볍게 瀉하게 되면 遠近의 氣가 모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邪氣가 外部에서 침입할 수 없어 마침내 병이 스스로 없어지게 되는데, 이 때에는 分肉사이를 刺鍼합니다.

무릇 熱邪를 刺鍼할 때에는 發散시켜 熱을 내리게 합니다. 그렇게 하여 한번 나간 邪氣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야 비로소 無病하게 되니 門戶를 열어 邪氣를 나가게 하면 病이 낫는 것입니다.

무릇 寒邪를 刺鍼할 때에는 날마다 溫補시키되 서서히 침을 놓고 서서히 침을 빼내야 神氣가 이르게 되니, 門戶가 이미 閉塞되어 氣가 빠져나가지 않고 虛實이 조절되어 그 氣가 保存되는 것입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官鍼은 어떻게 됩니까?”

岐伯이 말씀하였다. “癰에는 鈹鍼, 大에는 鋒鍼, 小에는 員利鍼, 熱에는 鑱鍼, 寒에는 毫鍼을 씁니다.”

“解結에 대하여 論해보면, 사람이란 天地의 理致와 相應하고 四時의 循環과 相副하니 이러한 도리에 입각하여 凝結된 邪氣를 풀 수 있습니다. 땅 아래에 水分이 많으면 위로 갈대와 부들이 생겨나니, 이런 현상으로 사람 形氣의 多少도 알 수 있습니다. 陰陽은 寒暑로 나타납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땅위의 水分이 雲雨로 피어올라 草木의 뿌리에는 水分이 부족해집니다. 이때는 사람의 氣運도 밖에 있어 皮膚는 늘어지고 腠理는 열려 血氣가 減少되고 땀이 크게 나서 皮膚에 물기가 촉촉해 집니다. 추워지면 땅은 얼어붙고 물은 얼음이 됩니다. 이때는 사람의 氣운도 속에 있어 皮膚는 緻密해지고 腠理는 닫혀 땀은 나오지 않고 血氣는 強盛하여 肌肉이 堅濤해 집니다. 이때에는 아무리 물을 잘 다루는 사람일지라도 얼음위로 건너갈 수 없고, 땅을 잘 파는 사람일지라도 언 땅을 팔 수는 없으니, 鍼을 잘 쓰는 사람일지라도 또한 四肢의 厥逆을 치료할 수 없고 만약 血脈이 凝結되어 얼음처럼 딱딱히 굳어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柔軟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을 다루는 사람은 반드시 날씨가 풀려 얼음이 녹기를 기다려야만 뱃길을 열 수 있고, 땅도 팔 수 있으니, 사람의 經脈을 다루는 理致도 이와 같습니다. 厥逆을 다스리려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찔기를 하여 그 經脈을 調和시키되 掌, 腋, 肘, 脚, 項, 脊 등의 부위를 따뜻하게 해야만 火氣가 通하여 血脈이 잘 운행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病脈을 보아 淖澤한 경우에는 鍼刺하여 和平하게 하고 堅緊한 경우에는 破散시키되 氣가 내리면 치료를 마치니, 이것이 이른바 解結입니다.

鍼을 활용하는 방법은 氣를 어떻게 調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氣는 胃에서 발생하여 營衛를 全身으로 流通시키되 각기 제 자리로 운행되도록 하고, 宗氣는 氣海에 머물러 아래로 내려가는 宗氣는 氣街로 注入되고 위로 올라가는 宗氣는 呼吸器로 走注합니다.

그러므로 厥逆이 다리에 있으면 宗氣가 下行하지 못하여 脈中の 血氣가 凝結되어 멈추게 되니, 火法으로 調節해 주지 않으면 낮지 않습니다. 鍼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經絡의 虛實을 살펴야 하니, 脈氣를 잘 살펴 그 變動狀態를 보고 난 다음에 取穴하여 病氣를 내려야 합니다. 六經이 調和를 이루고 있는 경우를 病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니, 비록 病症이 있을지라도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一經이 上實下虛하여 氣가 通하지 않는 것은 橫絡이 大經脈에 가해져 不通된 것이니, 血絡이 있는 부위를 보아 瀉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른바 解結이라고 합니다.

上部는 寒하고 下部는 熱하면 먼저 項太陽에 있는 天柱, 大杼 等穴을 刺鍼하여 오래 留鍼하고, 刺鍼하고 난 다음에는 뒷목과 肩胛部位를 찔기하여 따뜻해진 다음에 치료를 마치니, 이것이 이른바 熱을 밀어 올린다는 것입니다. 上部는 熱하고 下部는 寒하면 그 虛한 脈을 보아 그 經絡으로 熱을 陷下시켜야 하는데 熱氣가 내리면 치료를 마치니, 이것이 이른바 熱을 끌어내린다는 것입니다.

온 몸에 大熱이 있어 精神이 혼미해지면 妄見, 妄聞, 妄言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足陽明經脈과 大絡을 살펴 치료하되, 虛한 경우에는 補하고 血이 實한 경우에는 寫합니다. 그런 다음 患者를 반듯하게 눕히고 머리말에 앉아 양손의 네 손가락으로 頸動脈을 오래도록 按壓하는데 人迎에서 缺盆까지 反復하여 指壓하여 熱이 내리면 그치니 이것이 이른바 밀어서 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셨다. “하나의 經脈에 數十가지의 病이 생겨 或痛, 或癱, 或熱, 或寒, 或痒, 或痺, 或不仁하여 變化가 無窮하니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岐伯이 말씀하였다. “이는 다 邪氣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셨다. “내 들으니 氣에는

眞氣, 正氣, 邪氣가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眞氣라고 합니까?”

岐伯이 말씀하였다. “眞氣는 하늘에서 받아 穀氣와 더불어 함께 몸을 채우는 것이고, 正氣는 正風이라서 한 방향에서 불어오니 實風도 아니고 또 虛風도 아닙니다. 邪氣는 虛風으로서 사람을 傷하게 하는 것이니, 그 사람을 적중시킴이 깊어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正風은 사람에게 적중됨이 얕아 침범되어도 스스로 물러나는데, 그 氣의 侵犯樣相은 柔弱하여 眞氣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갑니다.

虛邪가 사람한테 침범하면 몸이 오썩오썩 떨리고 숨털이 일어나며 腠理가 열리게 되는데, 그 침범부위가 깊어 안으로 骨에 까지 이르게 되면 骨痺가 되고, 筋으로 침범하면 筋攣이 되며, 脈가운데로 침범하면 血脈이 閉塞되어 癰이 되고, 肌肉으로 침범하여 衛氣와 다투게 될 때에 陽이 우세한 경우에는 熱邪가 되고, 陰이 우세한 경우에는 寒邪가 됩니다. 寒邪가 침범하면 眞氣가 사라지고, 眞氣가 사라지면 몸이 虛해지고, 虛해지면 寒邪가 皮膚사이로 침범하게 됩니다. 그 기운이 外部로 발산될 때에는 腠理가 열리고 毫毛가 搖動하게 되는데, 氣가 往來하게 되면 痒이 되고, 머물러 물러가지 않으면 痺가 되며, 衛氣가 운행되지 않으면 不仁이 됩니다.

虛邪가 인체의 반쪽으로만 깊이 침범하여 안으로 營衛部位에 머물러 營衛가 조금이라도 衰해지게 되면 眞氣가 사라지고 邪氣만이 남아 偏枯가 발생하고, 그 邪氣가 輕淺할 경우에는 한쪽 經脈에만 痛症이 옵니다.

虛邪가 인체에 침범하는 경우에는 대개 병이 깊어서 寒과 熱이 서로 다투다가 오래 머물게 되면 안으로 固着되게 되는데, 寒이 熱보다 우세하면 骨疼, 肉枯가 되고 熱이 寒보다 우세하면 肌肉이 腐爛되어 膿을 형성하였다가 결국에는 骨까지 상하게 하는데 안으로 骨까지 손상되면 骨蝕이 됩니다.

虛邪가 먼저 筋으로 침범하여 筋을 쓸 수 없고 邪氣가 그 사이에 머물러 돌아가지 않으면 筋溜가 발생합니다. 虛邪가 結聚되면 氣가 물리게 되니, 衛氣가 머물러 돌아가지 못하여 津液조차 오래 留滯되면 腸溜가 되는데, 오래 된 것은 몇 년만에야 형성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를 손으로 만져보면 부드러운 것 같으나 이미 結聚가 일어나 氣가 물리고 津液도 留滯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다시 邪氣에 적중되면 凝結이 날로 심해지고 이어 딱딱한 積聚가 되어 昔癰가 발생합니다. 손으로 만져 보았을 때 탄탄하고 結聚된 부분이 있어 骨部位에서 까지 만져지면 邪氣가 骨에 까지 미친 것이니, 骨이 邪氣와 병합되어 날로 확대되면 骨疽가 됩니다. 虛邪가 結聚되어 肌肉으로 침범하면 氣가 물리게 되고 邪氣는 머물러 사라지지 않으니, 이때 熱이 있으면 化膿되고 熱이 없으면 肉疽가 됩니다. 무릇 이 몇 가지는 그 발생에 일정한 장소가 없으나 病症에 따른 일정한 病名은 있게 됩니다.”

## V. 結論

1. 第一章의 ‘去爪’를 ‘太素’ 楊注에서는 ‘去水’의 잘못으로 의심하였는데 본문에서는 水腫病을 예로 들고 있으므로 참고할 만하다.

2. 第一章의 ‘徹衣’가 張注本에는 ‘撤衣’로 되어 있는데, ‘徹’은 ‘撤’의 假借字이고, ‘刺關節肢絡也’가 ‘太素’와 ‘甲乙’에는 ‘刺關節之支絡也’로 되어 있는데 문장의 뜻으로 보아 ‘肢’는 ‘支’가 잘못 쓰여진 것으로 보이며, ‘憤臙’이 ‘甲乙’과 張注本에는 ‘憤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다. 또한 ‘善’이 ‘太素’, 馬注本, 張注本, 日刻本에는 ‘言’으로 되어 있는데, 앞뒤 문맥으로 보아 이것이 정확하고, ‘肢絡’이 ‘太素’와 ‘甲乙’에는 ‘支絡’으로 되어

있는데 문맥으로 보아 이것이 정확하며, '肢脛者人之管以趨翔也'가 『太素』에는 '股脛者人之所以趨翔也'로 되어 있는데 '管'의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太素』의 기재가 정확하고, '榮然'이 『太素』와 『甲乙』에는 '榮然'으로 되어 있는데 문맥으로 보아 이것이 정확하다.

3. 第一章의 "刺有五節"의 '節'의 해석은 約束, 標準으로 해석하여 鍼刺法의 基準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無過一里"의 '一里'는 鍼刺 깊이로 보아 一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刺邪以手堅按其兩鼻竅而疾偃其聲必應於鍼也"의 '偃'은 堰의 뜻으로 해석하여 코를 막아 소리가 새나가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난하고, "刺其聽宮中其眸子"의 '眸子'는 눈동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4. 第二章의 '脆道'가 『太素』에는 '詭道'로 되어 있는데, 文脈의 흐름으로 보아 太素의 記載가 정확하고, '不安處所乃散亡'이 『太素』에는 '不安其處所乃散亡'으로 되어 있는데, 문맥으로 보아 '所'는 '邪'의 誤字로 보이며, '凡刺熱邪越而蒼'중 '蒼'이 『甲乙』과 『太素』에는 모두 '滄'으로 되어 있는데 문맥상 이것이 맞다.

5. 第三章의 '血氣減'은 아래 문장에 '腠理閉汗不出'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서로 對句를 이루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잘못 補入된 것으로 보이고, '汗大泄'이 『甲乙』과 『太素』, 藏本, 統本에는 '汗大泄'로 되어 있는데 文脈으로 보아 이것이 맞으며, '皮'가 『太素』에는 '肉'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앞에 '皮膚緩'이라는 글귀가 있어 중복되기도 하고 文脈으로 보아도 太素의 記載가 정확한 것으로 보이고, '取之而下之'가 『甲乙』과 『太素』에는 '取而下之'로 되어 있는데 문맥으로 보아 이것이 맞으며, '令熱下合'이 『千金』에는 '令熱下冷'으로 되어 있는데 文脈으로 보아 이것이 옳고, '而復止如前'이 『太素』卷二十二「五邪刺」에는 '而復上如前'으로 되어 있는데 文義上 이것이 옳다.

6. 第四章의 '正氣者正風也 從一方來 非實風

又非虛風也'가 『甲乙』에는 '正氣者正風也 從一方來 非虛風也'로 되어 있는데 『靈樞·九宮八風』에 근거해 보면 甲乙의 記載가 옳은 것으로 보이고, '虛邪偏容於身半'의 글귀 중 '容'은 그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客'의 잘못으로 보이며, '熱勝其寒則爛肉腐肌爲膿 內傷骨 內傷骨爲骨蝕'이 『甲乙』에는 '熱勝其寒則爛肉腐肌爲膿 內傷骨爲骨蝕'으로 되어 있는데 文脈으로 보아 '內傷骨'은 잘못 重複된 것 같고, '有所疾前筋'은 '有所結'의 誤植으로 보이며, '發于筋溜'의 글귀 중 '于'는 '爲', '溜'는 '瘤'의 誤字로 보이고, '日以易甚'의 '易'는 바로 밑에 '日以益大'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益'의 誤字로 보이며, '宗氣歸之'는 '氣歸之'가 옳은 것으로 보인다.

## VI. 參考文獻

1. 皇甫謐: 黃帝鍼灸甲乙經,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2. 楊上善: 黃帝內經太素(清·袁昶刻本), 서울, 大星文化社, 1991.
3. 楊上善: 黃帝內經太素(蕭延平本).
4. 王冰: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5. 王冰: 王冰註靈樞經, 臺灣中華書局, 1972.
6. 馬蒔: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7. 張馬合注: 黃帝內經素問靈樞, 서울, 一中社, 1988.
8. 陣夢雷外 1人: 醫經註釋(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9. 張介賓: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1992.
10.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靈樞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11. 廓靄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서울, 一中

- 社, 1992.
12.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3.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14. 丹波元簡: 素問識, 素問紹識, 靈樞識, 難經疏證,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15. 小曾戶洋 : 黃帝內經古注選集5(靈樞講義), オリエト出版社, 1988.
  16.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臺北, 臺聯國風出版社, 1981.
  17. 王貴元 外1人: 評析本白話黃帝內經, 北京廣播學院出版社, 1993.
  18. 龍伯堅: 黃帝內經概論, 서울, 論章, 1990.
  19. 元陽真人: 黃帝內經(附白話全譯), 西南師範大學出版社, 1993.
  20. 李政育: 靈樞讀書,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77.
  21. 宗全和: 靈樞經, 春秋出版社, 內蒙古自治區, 1988.
  22. 池田政一: 靈樞概論, 서울, 陰陽脈診出版社, 1992.